

코스피	2612.43	코스닥	740.48
(+6.69)		(+13.07)	
금리	2.932	환율	1384.85
(+0.01)		(-3.85)	

해리스 기존 표적관세 vs 10% 보편관세 트럼프

2024 美 대선

(中) 주요 공약 비교

해리스 부통령

특정품목 표적 관세 유지 가능성
비교적 예측 가능 무역환경 예상

트럼프 전 대통령

전면적 관세 부과, 보호무역 강화
중국산 수입품에 60% 고율 관세
완성차 등 한국 수출품 부담 우려



ChatGPT로 생성한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 이미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기존 민주당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한국 기업들, 두 후보의 '관세 정책'에 가장 큰 관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의 주 내용을 보면 ▲세금 및 규제 완화 ▲보호무역 강화를 들 수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전반적으로 경제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두 후보가 낸 '관세 정책' 공약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확대되면 한국산 자동차 부품으로 대체될 수 있어 긍정적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범용 관세로 인해 한국산 완성차 수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있으나 이를 우회할 수도 있고, 개정이나 재협상 요구를 할 수도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관세 분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면

적인 관세 부과는 반대했지만,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전기차, 반도체 등 일부에 '표적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에너지 분야, 반도체 등에는 중국산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에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넓은 의미의 '보호무역주의'를 따르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

◆IRA, 법인세, 방위비분담금 등 관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철회하거나 일부 조항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IRA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환경 정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정부의 개입이 과도해 자동차 산업과 경제에 부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줄이거나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최상목(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기재위 국감 "세수 결손 메우려 외평기금 등 투입"

정부가 세수 결손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2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세(稅)수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방책으로, 외국 환평형기금 투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놓은 뒤 투입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으로 결손 세수를 돌려막기한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임광현 의원, 김영환 의원 등은 이 같은 반복 및 허위 보고 의혹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최상목 세수 결손대책 지적
외평기금 활용 않겠다더니
두 달도 되지 않아 말 바뀐

임 의원은 "지난 9월 재추계 보고 당시 (최 부총리는) 외평기금 추가 활용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외평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두 달도 되지 않아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금 관리에 대한 자체 변경 계획에 작년처럼 외평기금이 있다고 기재부 장관에게 물어봤을 때 외평기금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는 외평기금을 자체 변경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허위 보고, 거짓 보고한 것이다. 기재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주의의를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평기금 유동자산 총 규모가 본래 올해 계획이 80조 원이었는데, 수정계획을 보면 9월 말 기준 69조4000억 원으로 변경됐다"며 "세수 결손을 대비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럼 9월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AI 제조 선도사업' 26개 추진... 민·관 3.7조 투자 기대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
현대차·삼성중공업 등 대거 참여
생산 30% ↑, 제조비 20% ↓효과

현대차와 삼성중공업, 에코프로 등 국내 주요 제조기업들이 생산공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민관 3조7000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26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선도프로젝트에는 현대차, GS칼텍스,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등 국내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기업별 선도프로젝트를 보면, 섬유산업 대표 기업인 코오롱은 AI를 통해 설비상태와 품질을 실시간 감지하고 제어하는 한편, 무인 물류 시스템 등을 통해 공정 자동화를 추진한다. 섬유산업은 고령화가 심화된 업종으로 숙련 기술자 은퇴로 인력난과 생산기술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AI를 통해 배관 절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부터 용접까지 전 공정을 자동화하고, AI 기반의 가변 용접 조건이 탑재된 로봇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선업의 경우도 선박용 배관 공정은 숙련 용접공 은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 공정을 수작업에 의존한다.

세계 1위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는 AI를 활용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공정상 오류를 미리 예방하고 설비를 자동 제어해 최상의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의 경우 최근 전기차 화재로 품질확보가 중요한 업계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올해 초 보잉기 볼트 결합불량 사고로 항공기 분야 품질확보도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AI를 이용해 항공기 동체 조립공정에 산업용 로봇을 도입하고 작업지시·품질 검사 등을 모두 자동화하기로 했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대통령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연내 성과 내야" /사진 뉴스1
▲軍 "북한 무인기 침투시 즉각 대응... 응분의 조치"

▲尹, 우크라이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안전 지시
▲檢 "명태군 의혹" 수사 속도... 미래한 국연구소 대표 소환



▲이재명, 내달 재계 의견 청취... 경총과 정책 간담회 /사진 뉴스1
▲한미 외교·국방장관, 31일 워싱턴서 회의... 북파병 논의

日 이시바 정권 '흔들'... 역사문제 답보 등 한일관계 '찬물'

日 중의원선거 여당 참패 영향

자민당, 당분간 연립정권 집중할 듯
韓 정부, 한일관계 60주년 고심 커
“일본의 대담한 결단은 어려울 것”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의석 확보 실패는 모처럼 관계 개선 모멘텀을 맞은 한일관계에 찬물을 부은 격이란 분석이다. 집권당의 정국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는 당분간 연립 정권 확대나 정당 간 합종연횡 등 국내 세력 결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등 외교 쪽으로 눈을 돌릴 여력이 없어진 셈이다. 내년 한일관계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도 고심이 커졌다.

28일 일본과 국내 외교 전문가들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27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중의원 선거의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AP 뉴시스

따르면 이번 총선 결과로 이시바 정권

이 한일 관계에서 대담한 결단을 내리거나 변화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당장 일본은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권력 다툼이 시

작되면 책임론이 불거진 이시바 총리가 사퇴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 이시바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무언가 결단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한국이 일본 측에 대담한 결단을 원한다면 일본이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당인 자민당도 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지금의 한일관계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개선의 조짐을 보였던 한일 역사 문제가 답보 상태로 머무를 가능성이 커졌다.

역사인식이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시바 총리가 당내 강경 보

수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안팎으로 소신 발언을 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도 최근 한일관계개선 분위기에서 일본 정부의 구체적 보상 등 변화된 행동을 기대했지만 이 또한 어렵게 됐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관계 발전과 안정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본 내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으므로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현 단계보다 한층 더 진전된 일본의 태도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전날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19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15년 만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비자금 스캔들’ 파문 속에 집권당의 정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정국에 혼란이 예상된다. /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1면 ‘2024 美 대선...’서 계속

“기업 경영활동 위축... 산업·수출 경쟁력 떨어져”

산업용 전기료 인상 업계반응

철강·정유·석화 업계 등에 치명타
삼성전자, 연간 3500억 추가 비용
SK하이닉스, 최소 연간 1700억 예상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단행으로 산업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은 추가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공사는 지난 23일 산전용 전력 요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6.1원 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1kWh당 8.5원을 인상하고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을)은 1kWh당 16.9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표 이후 산업계에서는 전력 요금 인상이 경영활동에 부담을 안겨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한전의 적자 부담을 기업에만 전가한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전은 이 같은 기업들의 불만에 대해 “2021년부터 누적된 41조원의 적자(연결 기준)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



ChatGPT가 생성한 산업용 전기료 상승 이미지.

며 “부담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10월 16.6원 오른 데 이어 지난 2023년 11월에도 10.6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용 전력 요금 인상이 발표된 지난 23일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계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종 특성상 전력 수요가 큰 철강,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기업 등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제품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는 건설업계 침체의 영향을 받아 올 3분기 실적 부진을 겪었다. 지난 25일 3분기 실적을 공시한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모두 지난 분기 대비 적자 전환하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제철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전기료는 연 11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1538억원)의 7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전력 소비량이 많은 반도체 제조기업도 타

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에서 전기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을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삼성전자 사업장의 전력사용량은 2만 2409GWh(기가와트시)이며 이 중 90% 가량이 반도체(DS) 부문에서 사용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간 35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 역시 연간 최소 1700억원 이상의 추가 요금 부담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과 동시에 저전력에 힘쓰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제조분야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 경기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기업들이 고난을 직면한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떠안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전력 요금 인상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대략 전체 요금을 5% 가량 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추가 전기 판매 수익이 연간 단위로 약 4조 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트럼프, 제조업성장 촉진 법인세 15%로 인하 공약

이럴 경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이차전지 기업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다만 IRA는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라 쉽게 폐지하기는 어렵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IRA를 그대로 지속해 한국의 전기차 제조기업은 현지 생산 요건을 충족하려 노력할 전망이다. 다만 현지 생산 요구가 강화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미국 내 공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미국 현지에 투자한 이차전지 기업들은 기존 투자 기조를 그대로 밀고 갈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업 법인세를 15%(현행의 6%포인트 인하)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미국 내 제조업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압박을 받는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 즉 한미 방위비분담금이다. 한미는 이달 초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타결했다. 2026년 총액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원으로, 유효기간은 5년(2026~2030년)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재임 당시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4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SMA를 여러 차례 재협상하려는 전력이다. 한마디로 올해 타결된 SMA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협상이 불발된다면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를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돼 안보 환경의 불안도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syj@

기재부, 올해 세수부족 29.6조 예상... 기금 16조 투입

>> 1면 ‘기재위 국감’서 계속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9월 26일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외평기금 활용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외평기금 유동자산 규모가 수직됐고, 이는

사실상 외평기금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기재부가 보고한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따르면 올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29조 6000억 원이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기금 및 특별회계는 14조~16조 원 규모다.

이 중 외평기금이 4조~6조 원으로 비

중이 가장 크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통화 안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보유 및 운용하는 기금으로, 원화 가치 하락 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한다. 외평기금이 2년째 세수 부족분 대응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날 동시에 열린 기재위의 국제청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의혹을 문제삼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태국에 머물던 2019년 5월 당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했다. 1억 4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다.

구 의원은 “양평동 매입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수 국제청장은 “자금 출처나 또 원천을 다 따져서 어떤 식으로든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교육현장 AX 본격화... 비용·효과 우려 vs 신규 시장 기대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

〈교육계〉

〈IT·출판업계〉

AI 교과서 도입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순차 적용 교육계, 예산·인력 등 문제점 지적 IT업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박차

내년 3월부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초·중·고등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교육계와 정보기술(IT)·출판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는 비용 부담과 학습 효과를 우려하는 반면, IT 업계는 에듀테크 시장 확대를 기대하며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교육부, AI교과서 도입 '속도 조절' 시사

28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2025년 수학과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체 교과목으로 AIDT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교육 현장의 반발로 속도 조절을 검토 중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6학년도 이후 도입할 교과목에 대해 전문가 검토와 시·도 교육청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는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연평균 8.5% 성장해 내년에는 약 9조 9833억원, 2026년에는 10조 8319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대한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AIDT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초등학교에 도입돼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습. /Chat GPT 생성 이미지

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이 66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유지·보수 인력 부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이 17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는 397만 대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할 전문 인력은 823명에 불과하다. 장비가 고장나면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워 학습 환경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매년 8.5%씩 성장해 내년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는 AIDT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공개하지 않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이 약 6,6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학생들의 건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눈과 목의 피로를 유발하는 VDT 증후군 진료 인원이 30만명에서 38만명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초등학생이 36%를 차지했다.

◆IT·출판업계, AI교과서 도입에 총력 이과 같은 우려에도 IT 업계는 교과서의 AI 전환(AX)을 기회로 보고, 에듀테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에서는 자사 AI 언어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적용해 학생별 맞춤형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클라우드 플랫폼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개인 맞춤형 학습 제공 등 AIDT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다. 네이버클라우드에서는 올해 초 한국교과서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70여개 회원사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교과서협회는 회원사들이 네이버클라우드를 활용한 AIDT 서비스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협업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LG CNS도 교육출판사 미래엔과 협력해 클라우드 기반 AIDT 플랫폼을 구

축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교사와 학생이 PC와 모바일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학습 환경을 지원한다. 또 LG CNS가 보유한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플랫폼에 탑재해 동영상 강의, 과제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래엔은 수학, 영어, 정보(코딩) 등 교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과서 AX, 기대와 우려 속 균형점 찾기 필요"

전문가들은 예산 부담과 인프라 문제 해결이 우선되지 않으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교육전문가는 "기술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예산 문제와 인프라 개선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 우려를 해소하고, 기술과 교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200개 프로젝트 확대... "산업현장 혁신"

(2027년)

>> 1면 'AI 제조 선도사업...'서 계속

현대차는 AI와 로봇을 활용해 공정 계획과 스케줄을 최적화하고 수요에 맞게 물류와 생산경로를 실시간 조정해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생산하는 다품종 유연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정유·철강·시멘트 등 업계는 AI도입이 필수다.

GS칼텍스는 AI를 활용해 공정의 온도·압력·유량 등 주요변수를 실시간 분석하고 제어해, 휘발유·경유·등유 등 시장가격에 맞춰 생산 비용을 조정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삼표시멘트는 AI를 도입해 공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를 저감하는 방안을 찾는다.

포스코의 경우 제철·전로·압연공정 등 고위험 설비에 AI 자율제조를 도입해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품 품질도 제고하기로 했다.

제주 삼다수는 1년에 45억개의 감귤을 검사해, 이중 8억개 이상 '못난이 농산물'(과일음료용)을 선별하는데, 머신비전 AI를 통해 구분한 저품질 상품을 로봇을 이용해 선별한 후, 농축액을 자동 패키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부가 올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총 12개 업종

26개 기업이 과제 주관사로 참여한다. 프로젝트의 총 투자비는 3조 700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4년간 총 19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성은 30% 향상시키는 반면, 제조비용과 제품결함, 에너지소비는 각각 20%, 50%, 10% 이상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200개로 프로젝트를 확대할 방침이다. 200개 과제를 통해 20조원 이상의 국내투자가 기대된다. 프로젝트는 12개 업종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지난 7월 구성된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얼라이언스나 선도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자사 공정에 특화된 AI 자율제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AI 제조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2026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을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고 AI 자율제조를 산업현장 구축구석까지 확산하겠다"며 "오늘 확정된 선도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대한민국 산업현장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일상의 작은 다짐도
평생의 큰 꿈도
중요한 건,
해내는 것보다 해보는 것

시작에 힘을 더하다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공식모델 김지원

커지는 예대금리차... “연내 대출금리 인하, 사실상 어려워”

대출금리 인상 이어가는 은행권
예대금리차 4개월 만에 0.57%p ↑
주요 예·적금 금리 최대 0.3%p ↓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 고수

은행권이 늘어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시중은행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인 가운데 연내 대출금리 하락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0.57%포인트(p)를 기록해 7월(0.434%p) 대비 0.136%p 확대됐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건 4월(0.05%p) 이후 4개월 만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가 0.44%에서 0.71%로 0.27%p 올라 상승폭이 컸다. 이어 농협은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권의 연내 대출금리 인하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시스

(0.24%p), 우리은행(0.08%p), 하나은행(0.05%p), 신한은행(0.04%p) 순으로 나타났다.

8월 예대금리차가 다시 확대된 이유는 5대 은행의 가계대출금리(정책서민금융 제외)가 7월 평균(3.862%) 대비 8월 3.938%로 올랐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7월부터 금융당국

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반면 저축성 수신금리는 7월 3.428%에서 8월 3.368%로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올랐는데 예금금리는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이다.

예대금리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p 내리면서 은행 예·적금 금리가 더 떨어지고 있다. 시장금리가 수신 금리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은행은 적립식 예금 상품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12개월) 금리를 연 2.2%에서 2.0%로 0.2%p 인하했다. NH농협은행도 거치식 예금 금리를 0.25~0.40%p, 적립식 예금 금리는 0.25~0.55%p, 청약 예금과 재형저축 금리는 각 0.25%p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경남은행은 주요 수신 상품 금리를 0.2~0.75%p 인하, 부산은행도 수신 상품 금리를 0.10~0.35%p 인하, SC제일은행도 주요 예금상품의 금리를 0.1%p 인하하고 다음 달부터 예금금리를 최대 0.3%p 낮추기로 결정했다.

반면 은행권은 이달에도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지난 7월부터 30여차례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이달 초 5대 시중은행은 주담대, 전

세대출 가계대출 금리를 0.1~0.5%p 올렸고, 지난 25일에는 우리은행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금리를 최대 1.9%p 상향 조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금리 인상은 너무 쉬운 방식이다”라고 비판한 것이 무색하게 대출금리 인상 레이스는 지속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어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하향 추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올려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감소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 조정에 나서겠지만 연내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파격 할인부터 노선 다각화까지 생존 전략 총동원”

LCC업계, 공급증가·가격경쟁 치열
성수기 특가·장거리 노선 확장 가속
비여객 분야 진출 수익원 다변화 추진

코로나19 시기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던 저비용항공(LCC)사가 속속 재개장하고 있지만, 항공업계 경쟁이 치열해 업계에 재진입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던 LCC들이 복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플라잉윈은 소형 가전 전문회사 위닉스가 인수해 ‘파라타항공’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재운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소형항공사인 하이 에어·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도 컨소시엄이나 법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항공업계가 빠르게 기단을 늘려나가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공급과잉과 치열한 LCC 업계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항공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국제선 기준 대형항공사(FSC)가 약 1716만석을 공급했고, 저비용항공사가 1700만석을 공급했다. LCC 항공사가 늘어나면서 저비용항공사가 공급하는 좌석 수가 FSC와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이다.

현재 LCC 업계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총 8개 항공사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2024년 상반기 LCC는 국제선 약 1700만석을 공급했으나, 이용

객은 약 1500만명 수준으로 공급석이 이용객을 웃돈다.

LCC 업계 만형 제주항공이 약 483만석을 공급했고, 티웨이항공이 뒤이어 350만석, 진에어가 346만석씩을 공급했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각각 246만석·100만석을 공급했다. 이스타항공과 에어로케이도 기단을 늘리고 있어 LCC의 좌석 공급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충분한 수요가 따라올지 미지수다.

LCC 업계의 가격경쟁 또한 치열하다. 항공정보시스템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항공사의 노선별 운임 단가는 대략 ▲일본 17만원 ▲중국 16만원 ▲동남아 28만원 ▲미주 108만원이다. 하지만 각 항공사는 성수기나 신규 취항에 맞춰 큰 폭의 할인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LCC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일부 이벤트에서는 90% 이상의 할인 항공권이 나오기도 한다.

재진입하는 LCC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 또한 주요 항공사의 인수합병이라는 악재도 예상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통합 LCC 출범을 앞두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대형 LCC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LCC 계열사인 ▲진에어(대한항공 계열사) ▲에어부산·에어서울(아시아나 계열사)이 합병될 경우 보유 항공기 수가 56대로 늘어난다. 현재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의 41대를 웃도는 규모다.

대규모 기단을 앞세운 LCC에서 규모의 경제를 앞세우면 소형항공사는 가

격 경쟁력이나 노선 다양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 2대 주주로 대명소노그룹이 나서면서 두 항공사를 모두 인수해 합병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특화된 항공사이며, 티웨이항공 또한 2024년 하반기 유럽 노선에 본격 취항하며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수익성 좋은 장거리 노선도 재진입하는 항공사가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LCC 업계 관계자는 “LCC 업체 수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며 “노선 다각화뿐만 아니라 수입 다각화를 위해 여객 외 여러 사업을 시도한다”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metroseoul.co.kr

배달앱 수수료 갈등 여전... 최종 회의 앞두고 ‘평행선’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내일 9차 회의... 추가 회의 일정 無
갈등지속 시 공익위원 중재안 새 논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최종 회의를 앞두고 있으나, 배달앱 수수료 관련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배달앱 업계가 침묵을 이어가는 사이, 입점업체들이 속한 시민단체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해결책으로 삼고 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대대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가 열린다. 현재 회의 일정에 추가된 사항은 계획된 바는 없으며 일부 합의된 사항도 없다.

다만 계속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 촉구 시민 서명 기자회견에서 한 배달 라이더가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배달 앱 업계와 입점업체 간 배달 수수료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입점업체들이 속한 시민단체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뉴시스

원’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나오는 데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가장 큰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은 배달앱 수수료 부문이다. 배달앱 최대 점유율을 확보 중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곳은 입점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 9.8%를 받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의체 측에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 기준과 같은 9.8%, 중위 20%에는 5.8~6.8%, 하위 20%에는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 적용방식을 제안했다.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를 5%로 내리는 대신 쿠팡이츠가 내던 고객 배달비 일부를 입점업체가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부담의 절대액이 크지 않은 하위 20%와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위 20%를 감안하면 배달의민족 측 제안은 현상 유지 수준이며, 쿠팡이츠의 제안은 조삼모

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 단체 내에서도 수수료율 차등 적용 구간의 세분화와 수수료율 전체 인하 두 가지 방법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입점업체 단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통한 원천적 해결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독과점·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입점업체 등의 단체 교섭권 등까지 아우르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포기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 규제에 나서며 플랫폼 사후 지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 입점업체 단체는 조직행동에 나섰다.

입점업체 11곳이 함께하는 온라인 플랫폼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시 용산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법 입법을 통한 독과점 기업 규제 등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배달앱은 무료배달이라고 홍보하며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 비율을 인상하고 음식 가격을 자사에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서슴치 않았다”며 “지금까지 여덟차례 상생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지만 독점 기업 측에서 상생협의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적 기업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표적 기업뿐 아니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도 포함돼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해 시장독점 기업들의 입점업체 갑질, 알고리즘 조작 행위, 끼워팔기로 인한 이용요금 인상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IT 업계 관계자는 “장기화하는 불경기 속에서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플랫폼 업계 또한 불경기를 함께 겪는 중”이라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세상을 바꾸는 금융

건강한 일상부터

시니어의 모든 행복이 꼭~이어지도록

#1 시니어케어 편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은
시니어들을 위한 헬스케어부터

평안한 노후를 위한
라이프케어 서비스까지

건강한 일상, 시작부터 끝까지
KB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시니어의 인생을 더 든든하게
Korea Best
KB금융그룹

평안한 삶까지

[KB골든라이프케어]



도심형 실버타운, 평창 카운티
세심한 컨시어지 서비스와 편의성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도심 속 편안한 시니어 라이프 제공



선도적 요양 시설, 서초/위례빌리지
가족과 가까운 '서초', '위례'에서 시니어를
위한 쾌적한 환경과 간호/재활/케어 서비스 제공
*은행, 광고, 강동 개소 예정

[KB체크플러스]

의료기록을 기반으로 시니어들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KB국민은행 | KB손해보험 | KB라이프
KB증권 | KB국민카드 | KB자산운용 | KB캐피탈 | KB부동산신탁 | KB저축은행 | KB인베스트먼트 | KB데이터시스템

*b KB금융그룹

與野, 민생·공동공약추진협의회 출범

‘반도체·AI 산업 지원안’ 처리 속도

회의운영 방식 대한 공동합의문 발표 대표회담 선정 민생법안 우선 처리 연금개혁·저출생 등도 논의 제안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민생·공동공약 추진협의회 출범 회동에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진 정책위의장, 김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여야가 28일 여야 대표회담의 후속 조치로 민생·공동공약추진협의회(협의회)를 출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을 상임위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동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엔 국민의힘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여야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을 갖고 8개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는데, 그 중 첫번째로 발표된 것이 양당 민생 공동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운영이었다.

협의회는 이날 구체적인 법안 합의와 관련해서 협의하지 않고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협의회는 상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 혹은 비공개 방식의 협의체로 운영된다.

또, 양당의 정책위의장은 협의 사항을 총괄 검토하고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실무적인 협의에 나서, 양당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민생법안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 종합적 검토 및 협의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 제도 도입 적극 협의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할 바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2'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연금개혁 논의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출범과 함께 정부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이 된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논의 기구도 같이 협의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의 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데,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공동규탄 결의안도 같이 생각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가적 위기라고 할 저출생과 고령화 대책

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관련 법안,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입법 대책,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포함하거나 가맹점 등에 교섭권을 보장하는 등의 대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생 협력방안들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마침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고 한동훈 대표도 즉각 수락한 2차 당 대표 회담도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회에서 논의 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대표 회담을 통해서 타결될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총선 참패 원인 ‘불안정한 당정관계’”

국민의힘 총선백서 전문 공개 미완성 시스템 공천, 공약부재 등 꼽아

국민의힘이 총선백서에서 제22대 총선 참패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 부재'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8일 총선백서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당은 보도자료와 총선백서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총선백서특위가 분석한 국민의힘의 제22대 총선 참패 원인은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와 확장성 부재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공약 부재) ▲조직 구성 및 운영의 비효율성 ▲당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연속성 부재 ▲기능 못한 여의도연구원이었다.

백서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해 "선거 전부터 확인된 낮은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관리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집권 2년차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큰 영향을 받았다"며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과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위의 이슈들에 대해 당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총선백서특위가 '이슈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종섭·황상무 이슈(8.90점) ▲대과 논란(8.75점) ▲김건희 여사 이슈(8.51점) ▲해병대 채상병 이슈(8.24점) ▲의대 정원 확대(8.09점) ▲조국 신당 출현(8.05점) ▲당정 관계 이슈(7.96점) 순이었다.

총선백서는 '시스템공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총선 당시 현역의원 재배치 및 국민추천제가 줄속으로 추진됐다고 했다.

백서는 "총선거획단의 연속성이 없이 진행된 점, 공천 막바지에 진행된 점, 국민적 감응이라는 국민추천제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 현역의원 재배치에 따른 선거 결과 등으로 인해 '시스템 공천 제도'에 신뢰를 더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총선백서는 6대 개혁과제로 ▲당의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구조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제시했다. 총선백서에 당시 총선을 총괄했던 한동훈 대표(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아쉬움도 담겼다.

이지문 총선백서특위 위원은 "당정관계 현안에서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개선해줬으면 보다 심층적으로 백서 제작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답변 거부 사유가 백서의 공정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더욱이 대표 경선에 나온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민주당, '이태원 참사' 정부 진상규명 촉구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2주기 하루 전인 28일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가 내일 2주기를 맞는다"며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애통함을 참을 수 없을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렵게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우리 민주당은 특조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난 참사였다"며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만 신경쓰느라 시민의 안전은 동일시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년이 다 되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참사의 원인을 밝힐 특조위가 어렵사리 출범했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은 불투명하다.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던 자들은 하나둘씩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파 사고에 적용할 정부 매뉴얼은 2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고 특조위 위원 임명을 지체한 대통령 매뉴얼 마련에 손놓고 있는 정부의 모습에서 과연 이 정부가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할 국민은 없다"고 촉구했다. /서예진 기자

韓-美, 北 러시아 파병·대북정책 공조 논의

워싱턴서 '외교·국방 장관회의'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등도 협의 내달 1일, 캐나다와 2+2 장관회의

정부가 이번주 미국, 캐나다와 연이어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관해 논의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및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한미 2+2 장관회의는 지난 2021년 한국에서 5차 회의가 열린 뒤로 3년 만이다.

양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협력, 지역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도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에 군대를 보낸 북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대북정책 공조를 논의할 전망이다.

조태열 장관은 또 블링컨 장관과 별

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및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조 장관은 내달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김 장관, 캐나다 멜라니 졸리외 외교장관 및 빌 블레어 국방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나다 2+2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이 2+2 장관회의를 갖는 건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 3번째다.

한-캐나다 2+2 장관회의에서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및 양국의 국방·안보·방산 협력 방안, 주요 지역·글로벌 이슈를 논의한다. 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오타와 방문을 계기로 졸리외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는 지난 7월 채택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양국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전략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함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환경 하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최근 심화되는 북러 군사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와 양국 안보·방산 파트너십 제도화 기반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우리 정부는 한미·한일과 논의해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는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 후 귀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했다.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에는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

No.1을 넘어 Only.1으로
한양사이버대학원

한양대학교의



- ✓ 국내 최초 온라인 박사과정
- ✓ 글로벌 TOP100 6위
- ✓ 국내 최대 사이버대학원



클래스로

| 한양사이버대학원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 박사과정 개원,
일반대학원 온라인 석·박사과정 / 경영전문대학원

2024 세계혁신대학 랭킹 TOP100 6위
(Culture/Values 부문, 국내 대학 중 최고 순위)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최대 재적학생 수(1,240명)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gs.hycu.ac.kr



※ 이 광고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전용서체
“한양사랑체”를 사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무료다운로드 -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한양사이버대학원 25학년도 1학기 석·박사과정 모집

2024년 11월 01일(금) ~ 12월 12일(목)

대학원	학과	
일반대학원	기계IT융합공학	법·행정
	도시건축공학	교육공학
	아동가족	디자인기획
	상담및임상심리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마케팅, FA&T, IT경영, 광고미디어 트랙)	

맞춤형 석사과정

학점/논문과정
선택 가능



입학지원

대학원 입학문의 | 02.2290.0700 / 카카오톡 : 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



마케팅 줄여 순이익 낸 카드사... 하반기 건전성 관리 관건

카드사 4곳 합산 순익 5128억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
KB국민, 36% 늘어 3704억

광고비 등 판관비 줄여 순익 확대
효율화·신사업·채권회수 주력



3분기에 신용카드사의 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절감하는 등 허리띠를 조른 영향이다. 올해 남은 기간 건전성 제고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 4곳(신한·삼성·KB국민·우리카드)의 합산 순이익은 5128억원이다. 전년 동기(4047억원) 대비 25.9% 증가했다.

올해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가 낮아지면서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된 데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한 효과다.

KB국민카드의 3분기 누적순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36.0% 증가한 3704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순이익은 11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1% 급증했다. 올해 KB국민카드는 '쿠팡와우카드'와 '위시카드' 등 베스트셀러 상품

을 출시하면서 입지를 넓혔다. 신용판매 잔액이 늘었고, 모집·마케팅비용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부진했던 우리카드도 반등에 성공했다.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5% 증가한 560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누적당기순이익은 1402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다. 독자가 맹점 구축에 힘입어 결제망 사용 비용을 절감했다.

삼성카드의 누적순이익은 5315억원이다. 전년 대비 23.6% 늘었다. 아울러 신한카드의 누적순이익은 17.8% 증가한 5527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의 3분기 순이익은 각각 1734억원(10.7% ↑), 1687억원(21%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카드업계가 호실적을 냈지만 고충은 해소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결국 판관비를 줄여 순이익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업계가 가장 먼저 비용을 줄인 영역은 마케팅이다. 올 상반기 실적이나 온·오프라인 4곳의 광고선전비는 425억원이다.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70억원 가량 감소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 여전채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대내외 여건이 악화했다"며 "지난해부터 전반적인 영업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연체율 또한 골칫거리다. 지난 1분기를 시작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3분기 우리카드의 연체율은 1.78%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0.56%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2022년 이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연체율 관리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같은 기간 각각 0.23%p, 0.24%p씩 낮아졌다.

카드업계는 올해 남은 기간 비용 효율화와 신사업, 채권회수 등 3가지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분위기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던 만큼 다음해 영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감에서다. 일각에서는 조달 비용 절감이 이뤄지면 '헤지카드' 등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을 위해 크게는 신사업과 채권회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시기로 본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공사비 급등에 수익성 부진... 건설사 실적 썩

5개 대형건설사 영업익 감소 예상
원가부담시기 분양확대 여파 지속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미뤄졌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지만 공사비 급등에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여전히 부진한데다 지방 미분양도 좀처럼 줄어 들지 않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오는 30일, GS건설과 DL이앤시 31일에 3분기 성적을 공개한다.

현대건설이 이미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냈고, 다른 건설사들도 실적 부진이 예고됐다. 공사비 급등 시기에 분양했던 현장들의 원가율 개선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대형 5개사의 3분기 합산 실적은 매출액 26조2000억원, 영업이익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14.4%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승중 하나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추정치가 매출액은 큰 변동은 없지만 이익이 하향되고 있다"며 "1회성 정산이익이나 공사비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져 건축주택에 대한 마진 추정치가 내려갔고, 판관비에서 주택 및 건축 관련 비용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전히 2021~2022년 분양했던 공사현장들의 마진이 좋지 못한 수준으로 해당 현장들이 완공되는 2025~2026년부터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8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29.71다. 5월 고점(130.20)을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했지만 2020년 대비 30% 가까이 오른 상승폭을 감안하면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해외 수주 역시 사우디 파드힐리 가스 등을 제외하면 기대했던 대형 수주

성과가 없다. 이란-이스라엘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가 수주 기대감도 낮다.

현대건설의 3분기 매출 8조2569억원, 영업이익 1143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해외 현장에서의 일회성 손실이 반영되며 전년 동기 대비 53.1% 감소했다. 당초 시장 예상을 밑도는 실적에 올해 연간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 중이다.

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21년에서 2022년 원가 부담 시기의 주택 분양 확대 여파는 연중 이어질 것"이라며 "연내 착공이 예상됐던 CJ 가양동, 힐튼 호텔 부지 개발사업의 착공 지연 역시 단기간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LG 가산 부지와 CJ 가양동 개발사업이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 PF 불확실성은 다소 낮아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

LH "클릭 한번에 임대주택 신청하세요"

'마이마이 서비스' 본격 도입
행복주택·매입임대 등 청약시 활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 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마이마이(MyMy)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이마이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다. 임대주택 신청 시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려 다닐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 서류 제출을 끝낼 수 있다.

LH는 시범 운영을 통해 마이마이서비스의 안전성 검증을 마친 뒤, 당초 33종이었던 연계 본인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을 더해 총 41종의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또한 청약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도 '공공마

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통해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마이마이서비스는 이날부터 행복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유형 청약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다. 신규 계약 뿐만 아니라 재공급, 예비자계약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유형은 시스템 구축 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적용될 예정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마이마이서비스로 고객들의 임대주택 신청에 드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줄이고, LH는 업무 신속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주택 청약 신청, 계약, 입주 후 유지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국민 편의성 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 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진료비 쪼개기'로 7억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적발

허위 통원, 진단명 바꿔치기 등 수법
병원 의료진·환자 등 320여명 검거

금융감독원이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사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일당을 기획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보험사기 일당 320여명을 검거했다.

금감원은 28일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진료비 쪼개기와 허위 통원 입력, 진단명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7억원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을 적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기획조사 및 수사결과, 상담실장 A씨는 환자들에게 고강도 레이저치료 등 1회당 50~6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권유하면서 이를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1일 통원보험금 한도(약 20만 원)를 넘지 않도록 여러 날에 걸쳐 진료비를 분할하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병원장 B는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실례로 치료비 본인부담률이 30%이고 1일 통원보험금 한도가 20만원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1회 60만원의 치료비를 정상 청구하면 보험금 20만원(한

도)이 지급되는데, 3회로 쪼개 20만원씩 청구하면 보험금이 각 14만원씩 총 42만원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전산 진료기록에 '쪼개기'라고 별도로 기재하고 환자별로 진료비 총액에 맞춰 횟수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의료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B뱅크 인니, 3억 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Bank) 인도네시아'가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선순위 달러표시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KB뱅크 인도네시아가 처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KB뱅크 인도네시아는 투자자들의 우호적 평가와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금리 수준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KB뱅크 인도네시아는 채권 발행을 결정한 이후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3일간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4년 간의 KB뱅크의 재무구조 개선 및 부실자산 축소 등의 정상화 노력과 미래성장성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과 미국 내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발행 금액의 4.5배에 달하는 13억5000만불의 투자자 수요를



KB뱅크 인도네시아 전경. /KB국민은행

이끌어냈다.

KB뱅크 인도네시아는 지난 6월 국내 시중은행 자회사 중 최초로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로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동일한 'BBB'등급과 '안정적' 전망을 부여받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과 내년 상반기 중 오픈할 차세대 전산시스템(NGBS)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경영효율성 제고 및 홈세일/리테일 사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철에 대한 지식 쉽고 재미있게” 포스코그룹, 과학인재 양성 앞장

1%나눔재단, 인재분야 적극 투자
46개교 ‘상상이상 사이언스’ 운영
체험형 교육 통해 진로 탐색 지원

포스코그룹의 포스코1%나눔재단이 인재 양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단발성 행사 아닌 지역을 넘어 전국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기업과 사회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28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포스코 1%나눔재단은 포항·광양 46개교 5700여 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상상이상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상이상 사이언스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철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쉽고 재밌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과학교실 프로그램으로 포스코1%나눔재단의 시그니처 미래세대 육성 사업이다.

상상이상 사이언스는 중학생들이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일주일간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철이라는 소재의 특성에 대해 학습하고, 수소환원제철소 AR 탐방 등 체험형 교육을 진행한다. 마지막 5일차에는 미래 자신의 꿈에 대해 고민해보는 프로그



광양 다압중학교에서 상상이상 사이언스 과학교실에 참여하는 모습.

램을 통해 다양한 진로에 대해 탐색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상이상 사이언스는 교육을 담당하는 상상교사들을 지역에서 선발한다는 데서도 의미가 크다. 포항·광양 지역 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중 우수 인력을 선발하며, 올해는 총 62명의 상상교사가 선발되어 학교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6년동안 상상교사로 참여한 박효진 씨는 “상상교사로 선발된 덕분에 경력을 다시 살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너무 기뻐다”며 “그동안 50여 개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들로부터 감사인사를 들을 때마다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있

다”고 말했다. 과학교실에 참여했던 포항 동지중학교 이도원 학생은 “과학을 막연히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편견을 깰 수 있었고 장래에 과학기술을 통해 세상을 발전시키고 싶은 꿈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포스코1%나눔재단은 교육부와 MOU를 체결하고 상상이상 사이언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 등을 타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충청, 제주, 수도권 등 전국 40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과학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LG엔솔, 영업이익 4483억... 전분기比 130% ↑

매출 6.9조... 전분기比 11.6% 증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첨단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 금액을 제외하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3분기 매출 6조8778억원, 영업이익 4483억원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 전분기 대비 11.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7% 감소, 전분기 대비 129.5% 증가했다.

LG에너지솔루션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상길 부사장은 “3분기 매출은 북미 합작공장 판매에 더해 주요 유럽 고객사 출하량 확대, 인도네시아 합작공장(JV) 실적 연결 반영, 전력망을 중심으로 한 ESS 매출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약 12% 증가했다”며 “손익의 경우 EV 및 ESS 배터리 출하량 증가에 따른 전사 가동률 개선, 메탈가 하락 안정화로 단위당 원가 부담이 감소하면서 IRA Tax Credit 효과를 제외하고서도 전분기 대비 수익성을 상당히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미국 IRA 세액 공제 금액은 4660억원이다. 이를 제외하면 3분기 영업손실은 177억원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시장 주요 트렌드로 EV 시장 세분화에 따른

다양한 제품 수요 증가, 전기차 핵심 부품에 대한 비용 절감 필요성 확대, 전기차 안전성 중요성 부각 등을 꼽았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추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 요청에 최적화된 제품 솔루션을 지속 개발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고전압 미드니켈(Mid-Ni) 조성을 통해 표준형(Standard) 수요에 대응하고, 중저가형(Affordable) 시장에서는 CTP(Cell to Pack) 적용 LFP 제품으로 에너지 밀도, 가격 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46-시리즈 등 신규 폼팩터 양산도 안정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배터리 가격 및 효율성 측면에서는 수명과 안전성이 높은 단입자 양극재, 충전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이는 실리콘(Si) 음극재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안전성 측면에서 파우치 제품은 내부의 열을 빠르게 배출하는 설계 기술과 면냉각 구조를 개발 중에 있으며, 신규 원통형 폼팩터에 최적화된 쿨링 모듈 구조도 자체적으로 개발 완료해 안전성을 보강한 솔루션도 준비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어느 때 보다 급격한 대외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치밀한 전략을 통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압도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고객가치를 높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SKT-삼성전자, AI 기반 5G 품질 고도화

기지국별 최적의 파라미터 자동 추천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무선망 고도화를 추진한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인공지능(AI) 기반 5G 기지국 품질 최적화 기술(AI-RAN Parameter Recommender)을 상용망에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AI·딥러닝을 활용해 과거의 이동통신망 운용 경험을 학습하는 작업을 연중 지속해 왔으며, 각 기지국 환경에 맞는 최적의 파라미터(매개변수)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술 개발을 최근 완료했다.

양사는 최적화 AI 모델에 적용하는 파라미터를 다양화하고 트래픽 패턴이 빈번하게 변하는 지하철에도 확대 적용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연구원이 AI 기반 5G 기지국 품질 최적화 기술 실증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SKT

해 추가 학습 및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향후 빔포밍 관련 파라미터와 같이 AI로 최적화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시간 적용 기능을 개발하는 등 기술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배터리 내재화 분주... 벤츠 ‘클래스’ 새긴다

프로

벤츠 ‘e캠퍼스’

혁신적 화학 조성물, 생산 공정 갖춰
수백명 연구원, 차세대 기술개발 매진

“우리의 DNA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적용해 셀을 제작하는게 목표입니다.”(우베 켈러 메르세데스-벤츠 배터리 개발 총괄)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벤츠는 올해 7월 슈투트가르트 운터튀르크하임 본사에 e 캠퍼스를 개관했다. e 캠퍼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미래 전기차 배터리 및 셀 개발을 위한 역량 센터로, 혁신적인 화학 조성물과 최적화된 생산 공정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 DNA를 지닌 고성능 셀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120년 역사의 운터튀르크하임 벤츠 공장 내 새롭게 구축된 전기차 배터리 셀 연구개발 센터 ‘e 캠퍼스’를 방문했다.

e 캠퍼스에 들어서면 배터리의 원료인 흑연 파우더와 동전 모양의 코인 셀을 만날 수 있다. 코인 셀을 활용하면 개발하려는 배터리의 특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개발하는 공정도 살펴볼 수 있었다. 보호 헬멧을 쓰고 전신을 가린 방호



벤츠 e캠퍼스 전경.



21일(현지시간) 벤츠 e캠퍼스에서 연구원이 전극 생산 단계인 ‘캘린더링’ 작업을 하고 있다.

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화학반응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활물질과 용매를 섞어 슬러리를 만들고, 이를 롤러로 포일에 얇게 코팅하는 ‘캘린더링’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어 포일에 건조와 압연 작업을 거쳐 코팅한 전극의 두께를 줄이고 에너

지 밀도를 끌어올린다. 이를 배터리의 설계 규격에 맞춰 6개로 절단하고, 스테킹 작업과 전기 에너지 활성화 공정 등을 거치면 셀이 완성된다. 완성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모든 공정을 볼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실리콘 복합체 기반 고에너지 음극을 탑재한 리튬이온전지, 코발트프리(NMX) 양극재,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우베 켈러 총괄은 “현재 벤츠 전기차에는 다른 제조사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되고 있지만, 향후 벤츠의 DNA를 갖고 있는 자체 배터리 셀을 개발한 다음 이것을 공급사를 통해 제공받는 방식을 채택하려 한다”고 말했다.

/슈투트가르트(독일) = 양성운 기자

스타얼라이언스, 핵심 경영진 신규 선임

암바르 프랑코 등 부사장 4명 임명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세계 최대의 글로벌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는 회원사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 강화의 일환으로 핵심 경영진을 새롭게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타얼라이언스는 암바르 프랑코 고객 경험 담당 부사장을 신규 임명했다. 그는 스타얼라이언스의 전반적인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예약, 공항 이용,

회원사 간 환승 등 여행 후 고객 충성도 관리까지 아우르는 프로젝트를 주도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되는 뢰라쇼아는 정보기술(IT) 아키텍처, 운영 및 보안을 책임지며 전략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되는 레나토 라모스는 스타얼라이언스의 전략적 프로젝트와 사업기획 및 부서 간 협업을 이끌 예정이다. 인사 문화 담당 부사장에는 가아테리 실바쿠머 부사장이 임명됐다.

/양성준 기자

애플 '비전프로' 접고, 3년만에 '아이폰SE4' 미니로 반격

아이폰 16 시리즈 등 판매부진 대응
저가형 아이폰 SE4로 전략적 전환
디스플레이·노치 디자인 등 탑재

실적 부진에 직면한 애플이 야심차게 내놓은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프로를 접고 3년간 출시하지 않았던 아이폰 SE 신제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애플이 최근 발표한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프로와 신상폰 아이폰16시리즈는 초기 높은 관심과 달리 판매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애플은 비전프로의 생산량을 대폭 감축하고 중저가형 스마트폰 모델 '아이폰SE' 4세대 기기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IT매체 폰아레나 등 외신에 따르면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인 아이폰SE4 제품 사양이 구체화됐으며 내년 3~4월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3세대가 나온 지 3년 만이다.

SE4는 애플의 보급형 제품으로 기존 아이폰 시리즈 대비 사양과 가격을 내린 것이 주요 특징이다. 하지만 가벼운 무게와 작은 크기로 인기가 높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SE4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아이폰14와 유사하다. 기존 홈 버튼이 사라지고 디스플레이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점에서 아이폰SE 3세대가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이 기기 전체에 꽂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아이폰14와 동일한 1170x2532 해상도의 OLED 디스플레이에 평평한 모서리, 페이스ID 지원 노치 디자인을 탑재할 예정이다. 가격은 최신 기종인 아이폰15 기본모델(799달러)보다 300달러 이상 낮은 429달러(약 58만원)로 전망된다.

주목할 점은 보급형 폰인 아이폰SE4에도 인공지능(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아이폰SE4에 AI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차기 아이폰SE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A18 칩과 8GB 램 도입이 기대되는

데 애플이 저가형 아이폰SE 모델에 이를 지원해 애플 인텔리전스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인텔리전스 지원을 위해 아이폰16에 탑재된 A18 칩을 갖추고 아이폰15, 아이폰15 플러스와 동일한 48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와 1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이 3년만에 아이폰SE 신형을 공개한 데는 최근 부진한 실적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이 지난달 공개한 아이폰16리시리즈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애플이 아이폰16 시리즈의 할

인 판매를 일찍 시작한 점도 아이폰 신제품 판매치가 기대를 밑돌았다는 분석이다.

아이폰16의 출시 첫 주 판매량은 3700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작 대비 12.7% 줄어든 규모다. 올해 4분기 아이폰16 시리즈 생산도 전작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전문가로 알려진 귀밍치 대만 TF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는 4분기 아이폰16 시리즈가 8800만~8900만대 출하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도 야심 차게 내놓은 MR 헤드셋 비전 프로도 초기 높은 관심과 달리 판매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비전 프로는 애플이 아이폰의 뒤를 이어 차세대 기기로 지난 2월 신제품으로 내놓은 헤드셋이다. 그러나 초기 높은 관심과 달리 3500달러에 달하는 높은 가격과 저가의 경쟁 제품들로 인해 출시 첫 해 판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지난 초여름부터 비전 프로의 생산을 크게 줄였으며, 올해 말까지 현재 버전의 헤드셋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또 비전프로로 조립사인 중국 렉스세어에 오는 11월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애플이 이번 실적에서 어닝쇼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이타우 BBA는 "다음주 예정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발표에서 애플과 아마존이 어닝 쇼크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는게 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애플과 관련해선 "긍정적인 촉매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만으로 오르고 있다"며 애플이 기업 가치에 비해 고평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애플은 흥행 부진을 돌파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아이폰SE4를 꺼내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디자인을 개편한 아이폰SE는 애플이 저가 스마트폰 시장, 특히 중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이폰SE가 애플 폰의 판매대수를 늘리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매출 총이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저가 폰인 데다 아이폰SE가 애플 폰 총 판매량의 4~5%밖에 차지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점에서도.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AI비서 전쟁... 아이언맨 '자비스'가 현실로

구글, '자비스' 혁신적 AI 비서 개발
웹 브라우저 내 검색·쇼핑 등 작업 수행
네카오,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내외 정보기술(IT) 기업들이 'AI 비서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다. 영화 '아이언맨' 속 AI 비서(에이전트) '자비스'를 연상케 하는 AI 에이전트 기술이 실제로 현실화하면서 구글, 엔트로픽, 카카오 등 주요 IT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26일(현지 시각)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IT매체 디인포메이션을 인용해 구글이 '프로젝트명자비스(Jarvis)'라는 코드명으로 AI 비서를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AI 비서는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인식해 웹 브라우저 내에서 검색, 쇼핑, 항공편 예약 등의 작업을 인간 대신 수행한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사용자가 AI 비서를 사용하는 모습'에 대한 이미지.

구글의 자비스는 엔트로픽이 공개한 AI 비서 '컴퓨터 유즈'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다만 컴퓨터 유즈는 컴퓨터에 설치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다룰 수 있으나 구글 자비스는 웹 브라우저, 특히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현재 자비스는 소수의 테스터들에게 공개된 성능 검증과 피드백 수집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테스터들은 자비스가 작업을 수행하기 전 몇 초간 지연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연말까지 자비스의 성능을 개선해 대중에 공개할 계획이다.

구글은 현재 AI 시장에서 오픈AI에 크게 밀리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5월 'GPT-4o'에 이어 9월 'GPT-o1'을 새로이 출시해 챗GPT 사용자 수를 크게 늘렸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차별화된 AI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의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형 AI 비서 개발에 나섰다. 하이퍼클로바X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사용자의 명령을 정교하게 이해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이혜민 기자 hyem@

SK이터닉스, '연료전지' 금융약정 체결

충주·대소원 발전소 코파크 자금조달

SK이터닉스가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SK이터닉스(SK eternix)는 고효율 SOFC(Solid Oxide Fuel Cell,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발전소 충주·대소원에 코파크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SK이터닉스는 공동투자사인 참빛그룹과 자금조달 총괄을 맡은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지난 23일 다수의 재무적 투자자와 461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이는 국내 연료전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상 최대 규모로, 총 투자비 5420억원의 85%에 해당하는 수준

이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일대 약 1만 평 부지에 설비용량 총 80MW(메가와트) 규모의 충주에코파크(40MW)와 대소원에코파크(40MW)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SK이터닉스, 참빛그룹 및 재무적 투자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공동투자하여 개발 및 운영한다.

SK이터닉스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주기기 공급과 설계, 인허가 등 전체 사업관리를 맡았으며, SK에코플랜트가 준공과 시운전을 담당한다. 또한 미국 블룸에너지(Bloom Energy)가 O&M(유지 보수 관리)을, 참빛충북도시가스가 연료공급을 맡는다.

/차현정 기자 hyeon@

대한전선, 3분기 영업이익 272억 성과

고수익 제품 매출 지속 실현 주요

대한전선이 3분기 실적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전선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3분기 매출 8044억원, 영업이익 272억원을 잠정 집계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을 6300억원에서 28%, 영업이익은 174억원에서 56% 증가한 결과다.

특히 3분기 영업이익은 2010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해 연결 분기 실적을 측정한 이래로 역대 최대이다.

3분기 누적 매출은 2조 4573억원, 영업이익 9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883억원, 591억원에서 각각 18%, 58% 확대됐다.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 2023년 연간 영업이익인 798억원을 약 17% 이상 초과한 성과다. 매출도 2010년 이후로 13년 만에 가장 높다.

실적 상승의 주요 요인은 높은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고수익 제품의 매출을 지속 실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전선은 미국, 유럽, 중동 등에서 수주를 이어가며, 상반기 말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주잔고 2조 5500억원 규모의 수주잔고를 확보한 바 있다. /서현정 기자

KT, 5G 음성통화 기술 'VoNR' 전국 서비스 시작

5G 단독모드 보유한 통신사만 가능

KT는 5G 통화 기술인 'VoNR(Voice over New Radio)'을 전국적으로 서비스 한다고 28일 밝혔다. VoNR은 5G로 음성을 전달하는 기술로, 5G SA(Stand Alone, 단독모드)를 보유한 통신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앞서 KT는 2021년 5G SA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했다. 기존에는 5G 단말을 사용하더라도 음성 데이터는 LTE망에서 VoLTE 기술

로 전달됐지만 앞으로 KT 이용자는 LTE망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도 5G로 안정적인 음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T는 VoNR 상용화를 위해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통신장비 제조사 및 단말 제조사와 긴밀하게 협력했다. VoNR 서비스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KT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기술적 측면을 보완했다.

회사는 VoNR 서비스를 삼성 갤럭시

시 S23, S23+, S23 울트라 3종에 9월 배포된 갤럭시 One(원) UI 단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추후 갤럭시 S24(3종) 단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VoNR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KT는 기존의 5G 인프라가 5G 어드밴스드와 6G로의 진화되기 위해서는 5G SA가 필수인 점을 고려할 때 5G SA에서 이어진 VoNR 상용화가 국내 통신 업계의 혁신에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남영 기자



MUSEUM L

다양한 장르의 특별한 전시 **뮤지엄엘**

GRAND OPEN

오픈 기념 할인 & 이벤트 진행중

MONA LISA

모나리자 이머시브

2024.07.26 - 2025.07.25 뮤지엄엘 1관

ALBERTINA MUSEUM COLLECTION

ALEX KATZ

알렉스카츠

2024.07.26 - 2024.11.17 뮤지엄엘 2관

위대한 농구선수 75인 전

2024.07.26 - 2024.12.15 뮤지엄엘 3관



@museum.l

카메라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오픈특가,
카페할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뮤지엄엘 인스타그램> 링크로 연결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3 상상플랫폼 1층

백종원 “소스류 유통사업·MF 전략으로 해외진출 도모”

(마스터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 기업설명회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시작 첫날
상장 후 시가총액 4918억 달해

유통사업, 외식사업 매출 수준 목표
지역축제 개발, 기업 성장 가능성 ↑

“상장한다고 점포를 확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대로 성장은 유지하되, 해외진출 등을 위해 소스류 유통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니, 이 부분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 인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더본코리아 기업설명회’에서 이 같은 상장 이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은 더본코리아의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이 시작된 첫날이기도 하다. 확정된 공모가 3만4000원 기준 총 공모금액은 1020억원으로 더본코리아의 상장 후 시가총액은 4918억원에 달한다. 더본코리아는 백다방, 홍콩반점 등 25개 외식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으며 H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MR, 가공식품 등의 유통사업, 호텔사업(더본호텔)을 영위 중이다.

강석원 공동 대표이사는 더본코리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경쟁력을 발표했다. 강대표는 “외식사업으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유통사업 확장을 통해 매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수년 내에 유통사업 매출

을 외식사업 매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더본코리아의 매출 84.4%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발생했다. 유통사업 매출 비중은 13.7%, 호텔사업은 1.9%에 불과한 상황이다.

백종원 대표는 ‘해외진출’과 ‘지역 개발 및 축제 사업 개발’을 미래 성장 동력

으로 제시했다.

현재 더본코리아는 14개 국가에서 149개 직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백 대표는 “향후 마스터프랜차이즈(MF) 전략으로 해외 프랜차이즈 진출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며 “해외 굴지의 유통회사와 식품회사가 회사에 접촉해 오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특히 “K-콘텐츠가 글로벌시장에서 인정받는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더본코리아는 이를 위해 소스류의 OEM 생산(위탁생산)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내놓는다는 구상을 밝혔다. 백 대표는 “한식을 먹고 싶어도 해외에 있는 식당에서 모든 한식 메뉴를 만들 수 없다”며 “이러한 니즈를 바탕으로 소스만 섞어도 한식 고유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소스류 판매 유통라인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해외 현지 공략 계획을 설명했다.

소스류 개발로 가맹점주들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백 대표는 “백다방도 편의점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그런 우려를 받았지만 결국 수익은 더 올랐고 마케팅 효과를 더 누렸다고 볼 수 있다”며 “점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지, 일방적으로 유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예산 시장과 같은 ‘지역 축제’ 개발을 통해 회사 성장 가능성도 열었다. 백 대표는 “지역 발전을 위해 30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관련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역은 IP를 토대로 축제를 개발해주는 방식이며 지역 관련 사업 규모가 현재 더본코리아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합친 것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종원 대표의 미디어 노출이 큰 만큼 ‘오너 리스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백 대표는 “건강관리도 잘 하고 있고, 사람일은 알 수 없지만 사고를 쳐서 뭘 하겠냐”며 너스레를 떨었다. 끝으로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가 고물가 시대에 외식업계의 물가마지 노선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은퇴한 후에도 더본코리아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로 투명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상장 이후를 재차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레페리, 신개념 리테일 실험... 뷰티 크리에이터 오프라인 소통 ‘첫선’

장의 기업 탐방

레오제이 셀렉트 스토어

138만 구독자 보유한 ‘레오제이’
메이크업 고민 들어주며 실시간 소통
레페리, 글로벌서 K-뷰티 성장 도모

‘K-뷰티’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 성수동에서 신개념 리테일 공간 ‘레오제이 셀렉트 스토어’가 론칭됐다. 약 13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레오제이’가 엄선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선보였으며, 새로운 방식의 ‘뷰티 경험’을 선사하며 흥행을 이뤘다.

28일 레페리에 따르면 ‘레오제이 셀렉트 스토어’는 크리에이터만이 펼칠 수 있는 구독자·소비자의 소통의 특성을 오프라인에 구현한 첫 사례다. 뷰티 업계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뷰티 크리에이터가 선택한 상품을, 소비자



뷰티 크리에이터 레오제이가 14일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 중인 ‘레오제이 셀렉트 스토어’에서 메이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연결될 수 있는 구독자 등에게 ‘체험’ 위주로 연결시킨 것이 핵심이다.

레오제이는 “뷰티 제품을 구매하고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사용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상으로 전부 전달될까란 궁금증이 있었다”며 “이번 셀렉트 스토어를 통해 직접

제품 설명을 듣고, 사용해 보면서 구매 여부에 더욱 확신을 가지시는 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번 스토어의 가장 큰 차별화 역시 ‘경험’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셀렉트 스토어는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됐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했다. 레오

제이가 메이크업 고민을 들어 주며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LEO 메이크업 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약 150명을 초대한 ‘토크쇼 with 오레오(구독자명)’, ‘뷰티 패널 토크’ 등이 이뤄졌다.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셀렉트 스토어 1층에서는 레오제이가 엄선한 색조, 스킨케어, 향수 등 총 21개 브랜드 제품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진열돼 있다.

레오제이가 가장 추천한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은 그가 직접 도슨트로 변신해 스토어를 돌며 제품과의 매칭 스토리, 강점 등을 설명한다.

지난 14일 오후 1시께 레오제이 셀렉트 스토어에 방문한 최모(여·20대)씨는 “유튜브 제품 추천 영상을 볼 때, 광고도 많고 나에게 적합할지 의문이 생겨 믿음이 덜었는데 이렇게 셀렉트 스토어를 진행할 정도면 정말 자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추천 제품이 한 공간에 모여 있

으니까 보기에도 편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제품에 접근한다는 점이 확실히 메리트 있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레페리는 글로벌 뷰티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그룹으로 400여명의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를 보유한 매니지먼트 기업이다. 투자자에게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시기에 기업공개(IPO)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레페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뷰티 산업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우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셀렉트 스토어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신개념 리테일 실험이라는 도전을 추진했다.

최인석 레페리 의장은 “레페리는 프랑스의 와인과 패션처럼 분명하면서도 수준 높은 한국만의 종합 뷰티 라이프 스타일을 전 세계에 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증권株, 3분기 실적에 대형사 ‘웃고’ 중소형사 ‘울고’

대형 증권사, 상반기 이어 호실적
중소형사, 실적부진에 추가 약세

대형증권사들과 중소형 증권사들의 주가가 3분기 실적에 따라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대형 증권사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는 데 반해 부진한 실적을 보인 중소형 증권사들의 주가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주가는 이달들어 9%대 오르며

가장 크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삼성증권(7.81%), 한국금융투자(6.95%), 키움증권(3.62%), NH투자증권(1.49%) 등도 상승 추세다. 이에 반해 올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다올투자증권은 6.75%, SK증권은 2.70% 하락했으며 유안타증권은 0.34% 빠졌다.

대형 증권사들은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추산한 증권사 5곳(미래에셋·NH투자·삼성·키움·

대신증권)의 올해 3분기 합산 당기순이익은 1조6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2.34% 늘어난 수준이다. 키움증권을 제외한 4개사 모두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증권사들의 호실적은 해외주식 시장 호조에 따른 브로커리지 부문 수수료 수익 증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외화증권은 1379억4000만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투운용 ‘금현물 ETF’, 순자산총액 325% ↑

美 연준 금리인하에 금투자 수요 쏠림

한국투자자산운용은 ACE KRX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총액이 올들어 325% 증가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거래일(25일) 기준 A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총액이 2024년 들어 325.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ETF의 작년 말 순자산총액은 1095억원 수준이었으나 전일 4659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1개월 사이에만 1057억원이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익률 부문에서는 국내 상장 원자재 ETF 중 레버리지형을 제외한 23개 상품 가운데 6개월, 연초 이후, 1년 기간 모두 수익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 투자에 쏠리는 투자자의 관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Fed)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 평가받는 금 투자에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허정윤 기자

“한국전쟁 이후 기반시설 복구 거점... 안전·친환경에 올인”

Q 르포 | 강원도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 가보니

“이곳 삼척공장은 남한 최초의 시멘트공장이자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점이다. 삼표시멘트는 ‘안전·환경·사회적책임’을 중심으로 업계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강원도 삼척에 있는 삼표시멘트 본사에서 배동환 대표가 한국시멘트협회 출입기자들을 맞이하면서 전한 인사말이다.

2015년 9월 삼표그룹으로 편입, 삼표시멘트로 간판을 바꿨던 이곳은 실제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 곳곳을 한창 복구하던 1957년 당시 동양시멘트란 이름으로 탄생, 남한에서 처음으로 시멘트를 만들던 곳이다.

이에 앞서선 일제시대인 1937년에 일본기업이 시멘트공장을 건설, 1942년 7월에 완공하고 그해 시멘트 8만5850톤(t)을 최초로 생산한 곳도 바로 삼척이다.

95년에 시멘트 누적생산량 1억을 달성한 삼표시멘트는 현재 삼척공장에서만 연간 포트랜드 시멘트 958만, 클링커(시멘트 반제품) 780만t을 생산하고 있다.

삼표시멘트가 산업안전·친환경을 위해 ‘올인’ 하고 있다.

삼표시멘트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맡고 있는 심연석 상무는 “모두가 함께 하는 안전’을 방침으로 삼고 있는 회사는 2020년과 2021년을 집중 안전개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와 안전투자 비용으로 2년간 150억원을 투자했다”면서 “이후에도 매년 40억~50억원 가량을 ‘안전’에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표시멘트는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 안전체험 교육장인 ‘Safety Training Center’를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600평 규모로 들어선 안전 교육 센터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재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제조 및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 및 끼임(협착)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심연석 상무는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를 동시에 크게 늘리면서 ‘아차사고’ 등 잠재적 위험요인까지 개선,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잠재된 위험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면서 “지난해 1106건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643건의 감소 대책을 수립했고, 이 가운데 544건을 개선한 바 있다. 또 고 위험 작업군의 위험성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위험성평가(JSA)도 실시해 신규 작업 발굴까지 총 1106건의 위험성 평가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아차사고’란 사고가 일어날 뻔 했지만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삼표시멘트는 지난 9월엔 고용노동부 태백지청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경영에도 집중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에 있는 삼표시멘트 공장 전경.

/삼표시멘트

1957년 국내 첫 시멘트공장 열어 포트랜드 연간 생산량 958만톤

2년간 안전위해 150억 투자하고 매년 약 40억~50억 더 투입키로

1700억 규모 친환경 설비 짓고 제주항에 업계 첫 시멘트전용선

주원료인 석회석을 비롯해 점토, 규석, 철광석 등을 원료로하는 시멘트는 반제품인 클링커를 만들기 위해 1450℃의 고열로 가열하는 소성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가열할 때 주요 원료로는 유연탄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인 원료로 바꾸거나 유연탄을 순환자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조 과정에서 폐열을 재활용하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과제다.

배동환 대표는 “삼표시멘트는 환경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약

1700억원 규모의 친환경 투자 설비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 NOx(질소산화물) 예열기 개조 ▲설비 효율화를 위한 저 NOx 연소기 교체 ▲여과 집진기 교체 ▲저감시설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또 업계 최초로 60억원을 들여 제주항에 시멘트 전용선을 투입하기도 했다. 전용선에는 시멘트 분진날림 방지를 위한 밀폐형 하역 설비가 장착돼 있다. 동해 바다와 인접해 있는 삼표시멘트는 삼척공장에서 생산한 시멘트 전량을 배로 삼척항에서 부산, 목포 등 거점 지역으로 운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7000t~1만t급 시멘트 전용선 13척을 보유하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2021년에 26%이던 순환자원(연료) 대체비율이 2023년엔 34%까지 늘었다. 유연탄 대신 합성수지, 타이어칩과 같은 대체연료를 51만

9000t 사용하면 된다. 또 석회석 대신 석탄재, 오티류, 폐주물사, 슬래그 등 대체연료 사용 비율도 2023년 현재 9.7% 수준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건식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생산 공정에도 적용하고 있다. 석탄재를 부원료로 사용하면 탄소배출이 많은 클링커 생산을 낮출 뿐만 아니라 국내 연안에 매립해야 하는 석탄재를 연간 20만t까지 줄여 해양환경 오염도 막을 수 있다.

삼표시멘트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 중 하나인 ‘소성로에서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합성수지로 대체’ 연구과제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삼표시멘트는 2022년엔 시멘트 업계 최초로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신설, ESG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엔 한국ESG기준원의 ESG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삼척(강원) =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화관법 적용사 절반 “기술인력 확보 어려워”

(화학물질관리법)

중기중앙회, 502개사 실태조사 화관서 작성 평균비용 696만원 작성시 어려움 58% ‘복잡한 서류’

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지키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기술인력 확보’를 꼽았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관서)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업당 평균 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구비서류는 여전히 걸림돌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뿌리업종 등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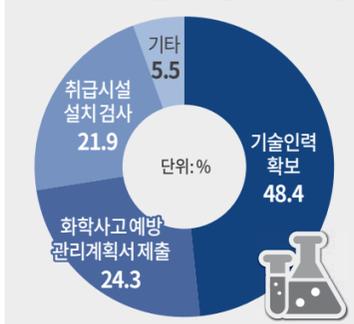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인력 확보’(37.7%)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인력 고용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48.4%는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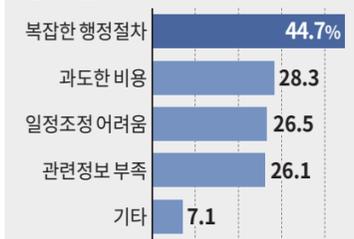
화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평균비용은 ‘695만8000원’으로 파악됐다.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였다.

화관서 작성 시 어려움(복수응답)으로 ‘복잡한 구비서류’(58.1%)가 가장 많

중소 ‘화관법’ 이행 애로사항



정기검사 준비시 어려움



았다. 이외에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이 뒤를 이었다.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인 ‘최하위규정수량(LLT)’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LT)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기업들이 주로 유해화학물

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등 업종에서는 최하위규정수량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사 응답 기업 중 80.7%가 화관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규정수량이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상당수 기업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관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는 우수기업에게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현재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검토되고 있는 ‘정기검사 1년 연장’ 이외에 ▲정기검사 연장 주기 차등화(1~4년) ▲세금 감면 혜택 ▲법 위반 시 처벌 감경 및 유예 ▲시설자금 및 기술인력 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했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와 더불어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는 등 규제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규제·경영애로 발굴 적극 개혁

중기옴부즈만-소공연, 업무협약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선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8일 오전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개선과 상호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규제 및 경영 애로 발굴과 개선,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규제개선 활동 홍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자리에서 소공연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어렵게 했던 업종별 규제개선 과제 56건을 옴부즈만에 설명하고 전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8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신설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업종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김승호 기자

홈쇼핑,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방송 지원

홈쇼핑 활용 판매·홍보 도와

홈쇼핑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우수상품 추천위원회’ TV홈쇼핑 방송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8일 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발굴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

매 및 홍보 등 판매망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기업은 홈쇼핑 1회(50분) 생방송 판매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판매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1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수출, 주력·신흥시장 고른 성장… 4분기도 플러스 기대”

산업부, ‘10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 9월까지 9대 주요지역 중 7개 지역↑ 반도체·IT 중심 수출 증가 지속 EU, 선박·바이오헬스 품목 호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에 참석해 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9월까지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7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0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지역 수출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출은 9대 주요 지역 중 EU(유럽연합), CIS(독립국가연합)을 제외한 중국, 미국, 아세안, 일본, 중남미, 중동 인도 7개 지

역에서 증가했다. (447억달러, +28%) 수출과 석유화학 (129억달러, +2%)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6.8% 증가한 979억달러

를 기록했다. 특히, 9월에는 2월 이후 7개월 만에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265억달러, +20%), 일반기계(115억달러, +17%)와 반도체(73억달러, +147%), 컴퓨터(36억달러, +170%) 등 IT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9월 누계 기준 951억달러(+14.0%)를 기록했다.

대아세안 수출(846억달러, +6.6%)도 반도체(200억달러, +25%) 등 IT 품목(319억달러, +17%)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석유제품(124억달러, +10%)·석유화학(50억달러, +22%)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중남미(220억달러, +17%), 중동(146억달러, +3%), 인도(141억달러, +6%) 등 신흥시장과 일본(221억달러, +

3%)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다만, 우리 4대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8월 플러스로 전환돼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품목별로는 선박(1~9월 56억달러, +98%), 바이오헬스(36억달러, +37%) 수출이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중동 분쟁, 러·우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견조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분기에도 수출 플러스가 기대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우데이, 1++등급도 저렴하게 만나요”

농식품부, 한우 20~30% 할인 공급 내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흘간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1등급 한우를 전년 대비 20~30% 싼값에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과 협력해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마련했다. 오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해 열리는 이 행사는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11.1 이른바 ‘한우데이’는 소(牛) 자에 1(-)이 세 개 들어가는 점과 한우의 맛이 최고라는 의미의 1이 겹쳐 생겨났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불고기, 국거리류 등이다. 판매한다. 특히, 농협 계열 온라인몰(농협라이블리, 농협몰 등)과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1++’ 등급의 등심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의 경우 7460원/100g, 양지는 3550원/100g, 그 밖에 불고기 및 국거리는 2670원/100g 이하로 판매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23년 10월 하순) 소비자 가격과 비교해 최소 20~30% 저렴한 수준이다.

행사 기간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열린다. 매장별 세부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기념행사와 현장할인 판매도 실시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2008년 첫 시작된 이후 올해 17회째를 맞은 한우 먹는 날은 생산자단체가 국민 여러분에게 한우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제정한 날”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함께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개최한다. /뉴시스

“소비자들께서는 한우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합리적 가격의 한우를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공정위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시 계약기간 재설정 의무화

앞으로 대리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구할 경우 계약기간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6개 업종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만, 공급업자의 개정안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자가 전액 비용을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인테리어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무원 이어 교원노조도 유급 활동 가능” 기업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 강화 추진

경사노위,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

앞으로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해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근면위)가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전원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원근면위는 지난 6월 28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13차례, 공약회의 2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 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

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사립 및 국공립대 간의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교원의 특성 및 활동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아울러,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3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이번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후 김 장관은 법제심사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환경부, EU CBAM 대응 설명회 개최

정부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높인다.

환경부는 오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국내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올해 4월부터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에서 개최했다.

이번 4차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소개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인 및 유의 사항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템플

릿) 작성 실습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와 정부의 지원사업 소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상담창구(헬프데스크)에 접수된 주요 질의를 소개하고, 참석자가 직접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 작성을 수행하는 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공급망 실사 등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SG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소개될 계획이다.

정부는 탄소무역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도도 기업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창구 운영과 기업 현장 맞춤형 진단, 기업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탄소감축설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세계 시장의 탄소무역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업들도 세계적인 탄소규제 강화의 추세를 감안해 탄소감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기자

환경부 수소 운반트럭 시범사업

환경부는 28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수소차량운반트럭(카트렌스포트)의 인도식을 진행하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소 차량운반트럭은 현대차가 지난 1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기반으로 제작에 착수해 이달 인증을 마쳤다. 최대 6대의 차량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고, 동급 디젤 차량 대비 우수한 동력성을 지녔으며, 1회 충전 시 380km 주행이 가능하다. 수소 차량운반트럭 시범사업 주관사로 참여하는 현대글로벌비스는 인수받은 차량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과 평택항 간 왕복 약 40km 구간에서 수송용 차량 운반 용도로 운용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유럽에서 2번째로 넓은 알프스 면적을 가진 이탈리아
그 속에 숨겨진 소도시들과 아름다운 기암 봉우리들을 찾아 떠나는 여정

이탈리아 돌로미티 & 알프스 소도시

[8박 10일]

No 팁!, No 옵션!, No 쇼핑!

알프스 소도시에서 즐기는 낭만과 여유로운 여행
전문 가이드가 함께하는 맞춤형 안전여행

freepik



 남프랑스 휴양지 & 예술인들의 소도시 [7박 9일]



 독일 중남부, 고성과 소도시 [7박 9일]



 이탈리아 남부 숨겨진 소도시 여행 [7박 9일]

MICE는 물론 일반여행도
여행사는 결국 에스앤마일즈입니다!



QR 코드 스캔
카카오톡채널 연결
등록 후 상담원 연결 가능



경남도, 방산업체 해외마케팅 지원... 336만弗 수출 성과

올해 3.8억 투입, 24개社 판로 개척
베트남·폴란드 등서 수출계약 체결
내달 'UAE 방산수출사절단' 파견

경남도가 도내 방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남도가 올해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방산업체 24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33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도내 8개 방산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베트남 방산수출사절단'을 파견, 베트남 하노이·호찌민에서 총 29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 기대액 3460만 달러를 달성했다.

9월에는 유럽 3대 방산 전시회 가운데 하나인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여해 총 42건의 상담을 통해 계약기대액 4억 3917만 달러를 달



경남도는 지난 7월 8개 방산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베트남 방산수출 사절단'을 파견해 총 29건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 기대액 3460만 달러를 달성했다. /경남도

성했다.

특히 베트남 방산수출사절단에 참가한 A사는 현장에서 베트남 업체와 36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여한 경도는 최근 동남아 B 기업과 300만달러의 방산 관련 부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2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수출 계약도 협의하고 있다.

경도 관계자는 "경남도 지원으로

방산 기업의 수출 시장 판로 개척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세계 시장 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박완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은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도내 방산 중소기업 메티스, 에어로매스터, 경도, 영풍전자, 우리에이치큐 5개사와 폴란드, 튀르키예, 독일 등에 소재한 6개 해외

기업 간 총 38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 협약 체결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도내 8개 방산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UAE 방산수출사절단'을 아부다비와 두바이로 파견해 중동 시장 개척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K-방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대표 방산 기업이 있는 경남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내년도에도 방산 분야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내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에 앞장설 계획이다.

양상호경남도 국제통상과장은 "경남의 주력 산업인 방산, 조선, 기계 산업 등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목포시

전기버스 보급사업 시행

전남 목포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4년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11대의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 지원액은 중형 최대 8642만원, 대형 1억700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신청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신청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영암군

영암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전남 영암군은 최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5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영암공원 무장애 나눔길 사업비 4억24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장애인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행로 경사로를 완화하는 등 산림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암군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영암공원에 지역에서는 최초의 총 0.5km 길이의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7개 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전남에서는 영암군과 장흥군 등 두 곳이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부산시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

부산시는 2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포스코홀딩스, 한국퀀텀컴퓨팅과 '양자컴퓨팅 기반 미래혁신소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양자컴퓨팅 기반 미래혁신소재 분야 협력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 양자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으로 포스코홀딩스는 미래혁신소재 개발 등을 연구한다. 한국퀀텀컴퓨팅은 양자컴퓨팅 연구 기반 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남도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점검 실시

경남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28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매립시설 7개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8개소 등 폐기물공공처리시설 45개소다.

폐기물 적정 처리 등 운영 실태, 정기검사, 자기측정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전반적인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매립시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관련 법령·지침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경남=이도식 기자

17개 축제·행사 'G-페스타 광주' 성료

예술·미식 주제로 구분해 운영
지역축제 통합브랜드 우수사례

광주에서 펼쳐지는 17개의 축제·행사를 통합한 브랜드 'G-페스타 광주'가 29일간의 여정을 마쳤다.

광주시는 가을을 감동과 재미, 맛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운 '2024 G-페스타 광주'가 막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12개 기관에서 진행하는 17개의 축제와 행사, 마이스(MICE)를 통합한 브랜드 'G-페스타 광주'를 출시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한달여간 선보였다.

예술을 주제로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 미식을 주제로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로 구분해 운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축제 통합브랜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예술적 감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즌1 '조이풀'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와 추억의 총장축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열린 '광주사운드파크 페스티벌'과 무대를 공유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으며 '광주에 이스케이프'에서는 3만6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3억6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액의 성과를 냈다.

'맛'을 주제로 열린 시즌2 '테이스트 광주'는 광주식품대전과 국제차문화전시회, 광주김치대축제, 광주송정남도 맛 페스티벌, 동명커피산책 등이 펼쳐졌다.

광주식품대전은 300개사가 참가해 450개 부스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상담 건수로 104억원의 상담액과 약 32억원의 계약을 달성했다.

광주시청 광장에서 열린 김치축제는 남도의 김치가 선보였으며 천인의 밥상, 광주김치스타셰프 푸드쇼 등을 통해 새로운 김치요리가 소개됐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 개막식 사진.

대구시, 미래 신산업 선도주자 발돋움

'미래혁신기술박람회' 성료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13만3118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FIX 2024는 '혁신기술이 바꿀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463개 기업이 2071부스 규모로 참가해 미래 산업을 이끌 혁신 생태계를 선보이며, 대구가 미래 신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나흘간 이어진 행사에는 13개국 81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국제 컨퍼런스

도 열렸다. 테슬라의 사이버트릭과 현대모비스의 e-코너 시스템을 장착한 실증 차량 '모비온' 등 혁신적인 콘셉트카가 주목받았으며, SKT와 한국공항공사 등이 공동 조성한 UAM 특별관도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박람회는 비즈니스 성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178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한 수출 상담회에서는 1636건의 상담을 통해 총 19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구매 상담회에도 52개 발주처가 참여해 654억 7000만 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

울산시, 고성능 배터리 생산공장 유치

(쥘디엔오토모티브, 621억 투자)

울산시가 621억원 규모의 고성능 배터리 생산공장을 유치함에 따라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28일 오전 시장실에서 김두겸 시장과 김인환(쥘디엔오토모티브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능 AGM 배터리 생산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AGM(Absorbent Glass Mat) 배터리는 흡수 유리섬유를 사용해 전해액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누출을 방지하고, 잦은 충·방전에도 긴 수명과 높은

방전 성능을 가진 고성능 배터리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디엔오토모티브는 621억원을 투자해 고성능 AGM 배터리 생산공장을 증설한다. 증설공장은 신일반산업단지(온산읍 처용리 581) 내 울산 1공장 유휴부지에 들어서며 2025년 11월 완공 목표로 한다. 이 공장에서는 연간 150만대의 배터리를 생산하며, 대부분 수출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유치는 공장 증설과 관련해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주시, 밀착형 산불예방 활동 박차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수립

경주시가 밀착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대응인력 운영 ▲산불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경영과와 2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구성된 24시간 산불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산불영상 모니

터링 등 산불 신고 접수 시 초동 대응에 나선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된 300여 명은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말 공휴일에는 주요 등산로에서 행락객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특히 드론감시단을 운영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4050세대도 달린다... 골프웨어 ‘주춤’, 러닝웨어 ‘질주’

카카오스타일

최근 한달 ‘포스티’ 러닝 키워드 상품 거래액 전월대비 91% 증가 ‘러닝화’ 거래액은 7배 이상 올라 푸마 거래 68%, K2 193% 늘어
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
골프웨어 실적 12.7%·20% ↓



카카오스타일 4050 패션 플랫폼 ‘포스티’ 러닝 열풍 관련 매출 증가 제공 이미지. /카카오스타일

워드 검색량은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상품 거래액 역시 전월 대비 91%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히 ‘러닝화’ 키워드가 포함된 상품 거래액이 7배 이상 올랐다는 게 카카오스타일 측 설명이다.

카카오스타일 관계자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젊은 세대와 마찬가지로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기는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된다”며 “포스티에서 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할 수 있도록 브랜드와 상품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티는 중장년층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패션 플랫폼으로, 4050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패션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군을 제공한다. 캐주얼 의류는 물론, 운동 및 아웃도어 아이템까지 폭넓은 제품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무릎 위까지 오는 짧은 반바지인 쇼츠, 레깅스 등 러닝 관련 제품군을 선보이는 푸마와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K2의 거래액 역시 각각 68%,

193% 늘었다.

반면, 골프웨어 제품군 매출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주요 백화점 골프웨어 실적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골프웨어 점포 기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12.7%,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20%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골프웨어의 역성장 배경에는 골프 시장의 축소 상황이 자리했다.

아놀자리서치 리포트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골프장 이용객 수는 4772만명으로 2022년 대비 5.7% 감소했다. 또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기·경북 등 지역별 이용자 수 역시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각각 -6.5%, -4.5%,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골프를 그만뒀다고 밝힌 50대 시민 황 모 씨는 “아무래도 비용 지출에 부담이 있는 골프보다는 러닝과 등산 같이 가벼운 운동을 즐기고자 한다”며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겐 골프보다는 러닝이 진입장벽이 낮은 게 반영된 상황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롯데GRS ‘엔제리너스’ 강원 농산물 ‘다래’ 신메뉴 2종 선보여

롯데GRS가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엔제리너스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제철 농산물 ‘다래’를 활용한 신메뉴 2종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도 특산물 다래는 달콤한 맛과 함께 비타민, 식이섬유 등을 갖춘 과일로 알려졌다. 이번 신메뉴는 겨울용 한정판으로, 뜨거운 음료와 차가운 음료 두 가지로 즐길 수 있는 ‘다래 레드 스위트’와 국내산 다래와 얼음을 활용한 ‘그린 윈터 다래 스노우’로 구성됐다.

특히 다래 레드 스위트는 크림스펀치의 상큼한 과일맛까지 더해졌다는 것이 엔제리너스 측의 설명이다. 또 그린 윈터 다래 스노우는 다래의 본연의 초록색을 강조해 자연적 요소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엔제리너스는 신메뉴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강원도 청년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엔제리너스는 신메뉴 출시와 함께 강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엔제리너스 공식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댓글 이벤트 참여한 고객에게 추첨으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이청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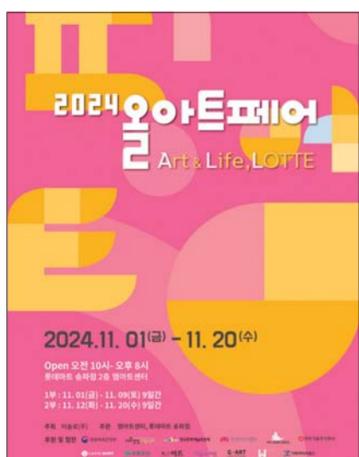
롯데마트, 미술작품 1000여점 전시 ‘올아트페어’

내달 1일~20일 송파점서 열여 참여작가 만남, 경매행사 진행 방문객 추첨해 미술품 등 경품

롯데마트가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송파점 2층 상설 미술품 매장에서 ‘올아트페어’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아트페어’는 100명의 미술 작가가 참여해 총 10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다. 대형마트 전시회 중 최대 규모로, 고객들이 격식 없이 수준 높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총 2부로 나뉘어 1부는 1일부



올아트페어 포스터. /롯데쇼핑

터 9일까지, 2부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롯데마트와 미술품 보관·거래 플랫폼 ‘미술로’와의 협업으로 마련됐다는 게 롯데마트 측의 설명이다.

롯데마트는 ‘올아트페어’ 개최를 기념해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했다. 참여 작가와의 만남 행사와 미술품 경매 행사가 각각 내달 1일과 16일에 진행된다. 또한, 19일에는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미술품과 인공지능(AI) 스피커, 굿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행운권 이벤트 경품 행사도 준비됐다.

/안재선 기자

한편, 롯데마트는 앞서 지난 8월 송파점 2층에 700평 규모의 상설 미술품 매장을 열고 전시 판매관, 이벤트관, 팝업스토어 등 총 13개의 고객 체험형 콘텐츠 공간을 선보였다.

상설 미술품 매장에서는 미술 강사의 도움을 받아 미술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아트드림’ 프로그램과, 창작마켓에 입점한 8명의 작가 작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플라마켓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창작마켓은 캐리커처, 풍경화, 비즈공예 등 작가가 직접 만든 작품을 구경할 수 있는 장터다.



오뚜기 ‘푸짐한 고명’ 올린 냉장면 칼제비 2종

오뚜기가 생면에 푸짐한 고명과 시원한 국물까지 갖춘 신제품으로 ‘냉장면 칼제비’ 2종(사진)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칼제비’는 칼국수와 수제비를 한데 담은 메뉴를 의미하는데, 이번 신제품은 ‘진한 장칼제비’와 ‘시원한 멸치칼제비’ 2종으로 구성됐다. 두 제품 모두 부드러운 생면 수제비와 칼국수를 넣어 식감이 쫄깃하다는 것이 오뚜기 측의 설명이다.

오뚜기에 따르면 ‘진한 장칼제비’는 태양초 고추장과 된장을 사용해 얼큰하고 구수한 국물맛이 일품이다. ‘시원한 멸치칼제비’는 남해안 멸치를 우린 깔끔한 국물에 흥고추, 당근, 표고버섯을 넣어 원재료의 깊은 맛으로 음식 품미를 높였다.

아울러 오뚜기는 지난 2023년 말, 오뚜기 열라면에 수제비를 더한 ‘열칼제비’를 출시한 후로 칼제비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CJ온스타일 “겨울 아우터 준비하세요”

내달 10일까지 ‘온스타일 패션위크’ 나이키·어그 등 브랜드 제품 특가

CJ온스타일이 내달 10일까지 2주간 하반기 역대 최대 혜택 행사 ‘온스타일 패션위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온스타일 패션위크’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해 CJ온스타일에서 준비한 아우터를 선보이는 행사다.

드뮤어룩 상품군과 함께 나이키, 어그,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브랜드들의 제품을 특가로 제공하는 혜택이 준비됐다. 드뮤어룩은 과하지 않은 스타일로 깔끔하면서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옷 디자인을 뜻한다.

CJ온스타일은 특가 행사에 맞춰 모바일 라이브 방송도 진행한다. 오는 29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되는 ‘한예슬

의 오늘 뭐 입지?’ 채널에서는 ▲르니나 ▲막스마라 ▲벤시몽 등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모바일 라이브에서는 ▲럭키브랜드 ▲던스트 ▲에르헨 등 현대적이고 세련된 스타일링을 돕는 브랜드 상품도 소개된다.

또 ‘오늘 뭐 입지 앵콜 특가’ 이벤트를 통해 ▲라코스테 ▲제너럴아이디어 ▲피브레노 브랜드 제품도 선보인다. 해당 제품들은 적립금과 특가 쿠폰을 활용해 구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CJ온스타일은 ‘패션위크 추천브랜드’ 이벤트로 상황별 패션 디자인(TPO) 추천 코너를 선보인다. 연말 모임룩을 완성시킬 여성 패션 제품을 최대 40% 할인한다는 게 CJ온스타일 측의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삼양식품, 신규 브랜드 ‘잭앤필스’ 공개

식물성 원료 기반 건기식 등 출시

삼양식품이 식물성 헬스케어 브랜드 ‘잭앤필스’를 공개하고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간편식, 단백질 음료 등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삼양식품이 잭앤필스에서 새롭게 내놓은 건강기능식품은 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딤슬립 포션 아슈아간다’와 에너지 대사를 증진시키는 ‘에너지 블라스트 포션 윈터치트’ 2종이다. 두 제품 모두 액상 형태로 빠른 흡수와 즉각적인 효과를 갖췄다.

이와 함께 삼양식품은 식물성 냉동 간편식 제품으로 쫄깃한 외피에 병아리콩을 갈아 만든 후무스 필링을 담은 ‘소프트 후무스 바이츠’와 ‘크리스피

플랜트 바이츠’를 선보인다.

각각 플레인과 핫스파이시, 스위트 갈릭과 크러쉬드페퍼 등 2종씩 구성됐다.

자연에서 유래된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 제품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한끼 식사로도 적합하다는 것이 삼양식품 측의 설명이다.

특히 크리스피 플랜트 바이츠는 삼양식품의 식물성 조직단백 기술인 변성고단백을 원료로 해 최적의 식감과 영양, 맛을 구현하고 있다.

또 ‘프로틴드롭’은 식물성 단백질 음료로 가수분해 완두단백을 사용해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 1일 영양섭취 권장량의 비타민B6, B12 등을 함유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먹는 약부터, 맞춤형까지”... 국내외 ‘비만 치료제’ 개발 봇물

**비만 관리 혁신적 치료제 등장
한미약품, 한국인 맞춤형 개발 집중
디앤디파마텍, DD02S 기술수출
바이킹, 먹는 비만약 개발 임상 진행**

국내의약품 시장에서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내외 비만치료제 개발 속도는 점차 빨라지는 분위기다.

28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이달 국내외 의약품 시장에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가 정식 출시됐다. 국내 유통은 줄리파마코리아가 맡고 있다.

위고비는 전문의약품으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약물이다. GLP-1은 음식 섭취 시 분비되는 체내 호르몬인데, 포도당 농도에 따라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기전을 갖춰 혈당 조절을 돕는다. 또 이 호르몬은 위장 운동 억제, 식욕억제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까닭에 국내외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GLP-1 계열 약물은 신약 후보물질로 각광받아 왔고, 지난 2021년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위고비는 비만치료제로 승인을 획득했다.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노보노디스크가 내놓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뜨겁다. /노보노디스크

이후 위고비는 지난 2023년 4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인 당뇨병 전 단계,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혈관 질환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하는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위고비는 주 1회 0.25mg으로 시작해 4주 간격으로 용량을 증량해 투약한다. 4회 투약 분량이 담긴 펜 모양 주사제 1개 기준으로 현재 구매 가격은 40만원 대 초반에서 8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는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 출시까지 예고되고 있다. 마운자로는 GLP-1과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분비 폴리펩타이드(GIP)에 이중으로 작용하는 효능제다.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마운자로는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되고 있어 국내 제약업체와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중이다.

이밖에 미국 바이오 기업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먹는 비만치료제’ VK2735를 개발하기 위한 임상을 진행 중이다.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오는 11월 3일 미국비만학회에서 VK2735의 주사

제 및 경구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비만치료제 개발에 역량을 쏟고 있다.

한미약품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인 ‘에페글레나타이드’를 ‘한국인 맞춤형 비만약’으로 개발하고 있다. 한국인의 체형과 체중을 반영해 글로벌 제약사의 약물들과는 분명한 차별점을 두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빠르게 2027년에 해당 물질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지난 6월 미국당뇨학회에서 처음 공개한 ‘HM15275’는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잇는 차세대 혁신형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다. HM15275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위 억제 펩타이드, 글루카곤 등 세 가지 호르몬 각각의 수용체 작용을 최적화하는 기전을 갖춰 비만 치료에 특화된 것이 특징이다.

신약개발 전문 기업 디앤디파마텍은 지난 2023년 미국 멧세라와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DD02S’를 기술수출하는 1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주목받은 바 있다. 특히 디앤디파마텍은 ‘오랄링크’라는 펩타이드 경구화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경구용 흡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LF ‘티톤브로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겨울 아우터’ 인기몰이

생활문화기업 LF의 아웃도어 브랜드 ‘티톤브로스’가 겨울 외투 판매가 늘면서 10월 매출이 전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티톤브로스는 최근 2024년 가을·겨울 시즌 신제품인 ‘얼라이브다운’ 상품군을 선보였다. LF에 따르면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신규 상품군에 대한 고객 관심이 높아지며 신규 상품군이 가을·겨울 상품군 매출의 60%를 차지했다.

‘얼라이브다운’은 해발 6000m의 미국 알래스카주에 위치한 대널리 등반을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극한 추위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친환경 브랜드 기업 얼라이드가 생산하는 거위 털과 함께 얇고 내구성 강한 ‘12D 리사이클 립스탑’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옥타’ 상품군이 티톤브로스의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는 게 LF 측 설명이다. ‘옥타’는 중공사에 8개의 돌기를 방사선 형상으로 배열한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흡습·속건, 경량, 단열 등 기능을 갖췄다. /안재선 기자

‘유시몰’ 판매량 2600만개 미백·순한 사용감 인기몰이

**LG생활건강, 민트볼·캔디류 등 확대
다양한 라인업으로 탄탄한 입지 구축**



LG생활건강의 고급 구강관리 브랜드 유시몰은 오리지널 라인(왼쪽부터), 화이트닝 라인, 화이트닝 퍼플코렉터 라인 치약 등 다양한 제품으로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올해 10월 기준, 고급 구강관리 브랜드 ‘유시몰’의 누적 판매량이 2600만개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21년 3월 국내에서 유시몰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후 약 3년 반 만에 국내 구강관리 시장에서 유시몰은 브랜드 입지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특히 LG생활건강은 유시몰이 전통적인 구강 관리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한다고 설명한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유시몰 제품은 한번 쓰면 잊기 어려운 ‘중독적인 상쾌함’을 특징으로 갖춰 ‘오리지널’ 제품은 일명 ‘파스맛 치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유시몰은 치아미백용 제품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국내 최초로 치아 미백 성분 메타인산나트륨(SHMP)을 담은 ‘화이트닝 라인’을, 올해 2월에는 ‘화이트닝 퍼플코렉터’ 치약을 출시했다.

또 유시몰은 치약뿐 아니라 칫솔, 가글, 치아미백제, 민트볼, 캔디류 등 다양한 제품군을 구축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한·중·일 관광객 1위 상품은 ‘홍삼정”

신세계푸드 인천공항점서 인기 간식 순위

신세계면세점이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점’의 국가별 인기 식품 순위를 집계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이 7~9월 인천공항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인기 식품을 조사한 결과, 한·중·일 관광객들은 모두

‘홍삼정’을 가장 많이 구매했다. 관광객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건강식품으로 홍삼을 선물용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신세계면세점 측 설명이다.

반면, 일반식품에서는 각국의 상품 종류 선호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유한양행, 3분기 영업이익 545억 ‘역대 최대’

미국 FDA 승인 ‘렉라자’ 영향 커

유한양행이 기술수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 신약 ‘렉라자’의 상업화 효과로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했다.

유한양행은 28일 지난 3분기 별도기준, 5852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3분기 누적 매출은 1조532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다.

특히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컸다. 유한양행은 지난 3분기 별도 기준, 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69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85.1% 늘어난 237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영업이익의 증가는 기술료

수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한양행은 지난 9월 안센 바이오테크에 기술수출한 EGFR 표적 항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의 상업화에 따른 기술료 6000만 달러(약 804억원)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제31호 신약인 ‘렉라자’는 지난 8월 국산 항암제로서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품(FDA) 승인을 획득했다.

마일스톤 수령 금액은 대체로 60일 이내 수령되는 만큼 이번 3분기 실적에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유한양행 라이선스 수익은 981억7000만원으로 전년(5억원) 대비 무려 196배 이상 급증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애경산업이 물걸레 로봇청소기를 간편하고 똑똑하게 관리해 주는 전용 세제 ‘로봇청소기 울인원 클리너’를 선보인다. /애경산업

애경산업 ‘흙백신’ “냄새 나는 로봇청소기 탈취·세척까지 한번에”

생활뉴티기업 애경산업은 흙 위생관리 브랜드 ‘흙백신’에서 물걸레 로봇청소기의 쿼퀴한 냄새부터 바닥 오염까지 관리할 수 있는 ‘로봇청소기 울인원 클리너’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흙백신 로봇청소기 울인원 클리너는 피마자 유래 탈취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로봇청소기 물걸레와 오수통의 냄새 원인물질을 99% 탈취해 냄새 걱정 없는 쾌적한 사용을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공인기관 시험을 통해 자동 세척 시 물걸레에 묻은 먼지, 얼룩, 찌든 때의 세척력뿐만 아니라 바닥 오염 제거력을 확인받았다. 또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파라벤 등 피부에 걱정되는 7가지 성분을 함유하지 않았다.

흙백신 ‘로봇청소기 울인원 클리너’는 물에 쉽게 용해되는 액체 제형으로 로봇청소기의 물통 용량에 따라 세제와 물을 1:200의 비율로 희석해 사용하면 된다. 향료를 넣지 않은 무향인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JW중외제약, ‘헴리브라’ 소아 임상 성공

소아 A형 혈우병 출혈률 대폭 감소

JW중외제약은 국내 중증 A형 혈우병 비항체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의 약효와 안전성을 입증한 첫 연구 결과가 국내 혈액학회지 ‘블러드 리서치(BLOOD RES EARCH)’에 게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전까지 해외 연구에서 헴리브라의 소아 환자 대상 출혈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지만, 국내 환자의 실제 처방 데이터(Real-World data)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헴리브라는 A형 혈우병 환자의 몸에 부족한 혈액응고 제8인자를 모방하

는 기전의 혁신신약이다. 혈액응고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이 적용됐다. 특히 헴리브라는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기존 치료제(제8인자 제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뿐 아니라 비항체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최대 4주 1회 회하주사로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특징도 있다.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혈액종양과 김성은 교수연구팀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0~11세 중증 A형 혈우병 비항체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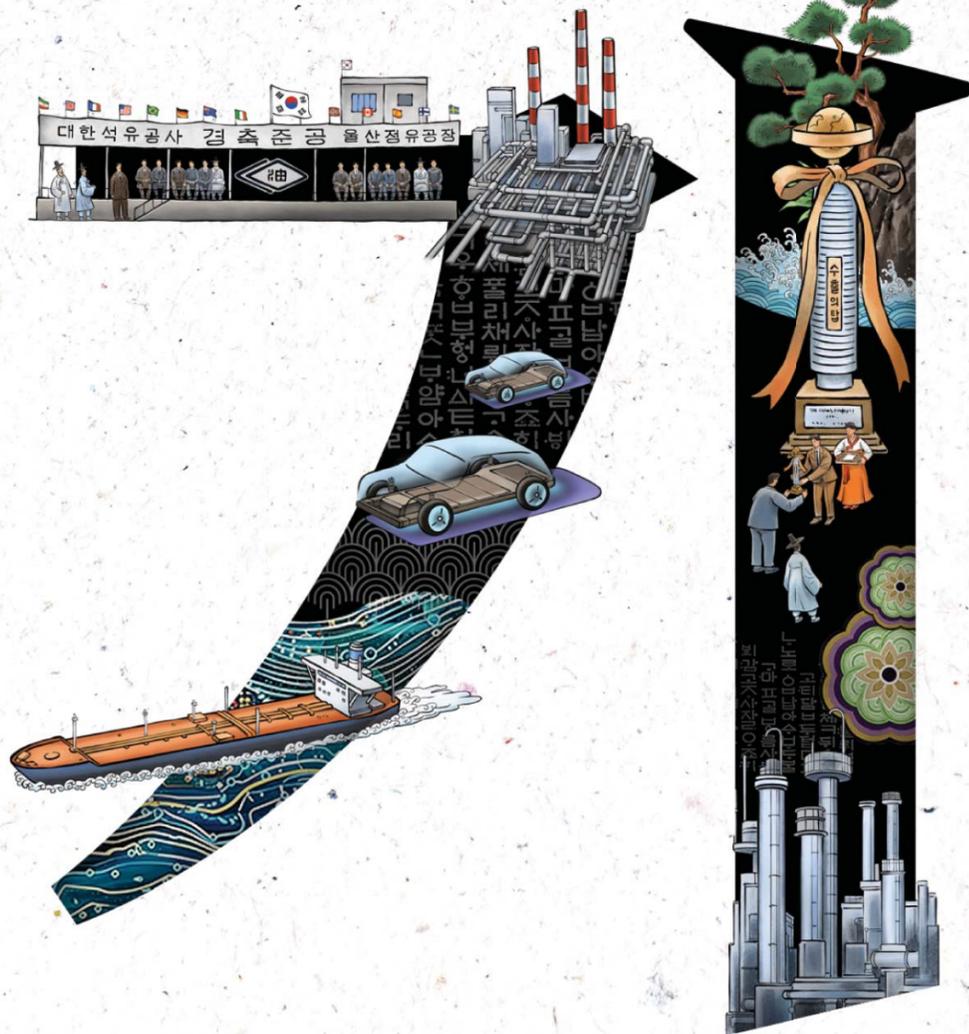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나의 도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를 넘어설 것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에너지까지

혁신에 혁신을 더하다



QR코드를 찍고
내일의 에너지를
확인해보세요





제주항공, 인천~발리 노선 신규 취항... 주 7회 운항
 제주항공은 인천~발리 노선에 주 7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한다고 28일 밝혔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오른쪽 맨 앞) 등 내·외빈들이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제주항공 인천~발리 노선 신규취항식에서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항공



대한항공, 1사 1촌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대한항공은 임직원과 가족 30여명이 지난 25일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 임직원과 가족들은 농작물 수확이 끝난 농지를 정리하는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대한항공 항공의료센터 의료봉사단에 소속된 전문 의료진도 봉사활동에 참여해 간단한 문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했다. /대한항공



현대홈쇼핑, '친환경 어린이 그림대회' 시상
 현대홈쇼핑이 '제2차 친환경 어린이 그림대회'가 약 두 달간의 예선·본선·결선을 거쳐 5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며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한광영 현대홈쇼핑 대표이사(왼쪽 두번째)가 이건을 어린이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모습. /현대홈쇼핑



천장호 광운대 총장,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선정
 광운대학교는 천장호 총장이 '2024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에서 교육혁신 부문 우수 CEO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천 총장은 모집 정원의 25%를 자율전공학부 모집해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보장하고, 융합교육 인재 양성을 위해 '다전공 이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천장호 광운대 총장(오른쪽)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운대학교

현대차·기아 '소프트웨어 부트캠프' 참가자 모집

현대자동차·기아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개발 체계 전환에 맞춰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를 모집한다. 현대차·기아는 다음 달 13일까지 채용 연계형 교육과정 '소프트웨어 부트캠프' 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 ▲웹(Web) 개발 ▲서비스 기획 ▲디자인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 4개 분야 총 75명 규모로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올해 9월 국내의 대학 졸업자부터 내년 8월 졸업 예정자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그룹, '휠체어 이동식 대여소' 선보

이동약자 축제·행사 참여 지원 "대여소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동약자들을 위한 '휠체어 이동식 대여소'를 새롭게 선보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4~27일 '강릉 커피 축제'가 열린 강원 강릉시 안목해변 일대에서 '휠체어 이동식 대여소'를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휠체어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이동 약자에게 전동화 키트와 전동화 휠체어를 무상 대여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이 축제 또는 행사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축제 현장에 전동화 휠체어 및 휠체어 운반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이동식 대여소' 사업을 추가했다. 이를 위해 지난 달 한국관광공사와 축제·행사



현대차그룹 '휠체어 이동식 대여소' 운영 현장 모습.

가 많은 시기 전국 주요 축제 현장에서 이동식 대여소를 운영하기로 협약했다. 또 지난 달에는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휠체어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고, KTX 강릉역 내 강릉무장애관광안내센터에서 휠체어 신규 거점도 구축했다. 강릉시는 지난 2022년 무장애관광도시 1호로 선정됐으며,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인프라 개선, 관련

서비스 및 인력 양성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서울, 부산, 제주, 경주에 이어 강릉에서도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이동약자들의 이동권이 전국적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현대차그룹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휠체어 대여소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은, 김언성 감사 임명
 (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한국은행은 신임 감사에 김언성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사진)을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은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오는 2027년 10월 27일까지다. 김 신임 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재정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한전기협회 내달 전력정책 포럼

대한전기협회가 국내 청정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11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C310호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37차 전력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BIXPO 2024 행사 기간 중 최신 기술 트렌드를 교류하고 미래 신사업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홍총 단국대학교 교수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양성운 기자



경총, '청년도약 멤버십 컨퍼런스'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청년의 일경험·직업훈련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에 앞장서는 기업을 격려했다. 경총은 서울 JW메리어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년도약 멤버십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도약 멤버십 컨퍼런스'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 ESG 등급평가

한화시스템, 상생경영 지속... 4년 연속 '통합 A'

지역 중장기 지원... 사회 'A+'
 한화시스템이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4년 ESG 등급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21년부터 한국ESG기준원의 ESG 등급평가에서 4년째 통합 A등급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KCGS)는 국내 상장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3가지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사회 부문에서 협력사 ESG 관리 강화 및 지역사회 중장기 지원 목표 설정 등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한

점이 반영돼 A+등급을 받았다. 한화시스템은 100개사 내외의 협력사들과 매년 두 차례 '상생협력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고, 지난 2021년부터 '동반성장데이' 행사를 개최해 ESG 활동이 우수한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등 국내 상위 방산기업으로서 상생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박대성 기자 iunm@s

현대로템, 최고등급 '통합 A+' 획득

지난해 대비 한 단계 상승
 현대로템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현대로템은 한국ESG기준원

(KCGS)가 발표한 '2024년 상장기업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 통합 A+(매우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환경과 사회 부문에서 A+(매우 우수)등급을, 지배

구조 부문에서는 A(우수)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현대로템은 각 분야의 중장기 목표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인정받았으며 그 결과 지난해 통합 A(우수)등급에서 올해 한 단계 상승한 A+(매우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양성운 기자

- 인사**
- ◆외교부 △주인도대사 이성호 △주프랑스대사 문승현
 - ◆특허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가급 △특허심판원장 서우수
 - ◆소방청 △소방감 승진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박성열
 -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노동시장경제과장 장주성
 - ◆고려대 △체육위원회위원장 조훈희 △경제기술안전연구원장 김성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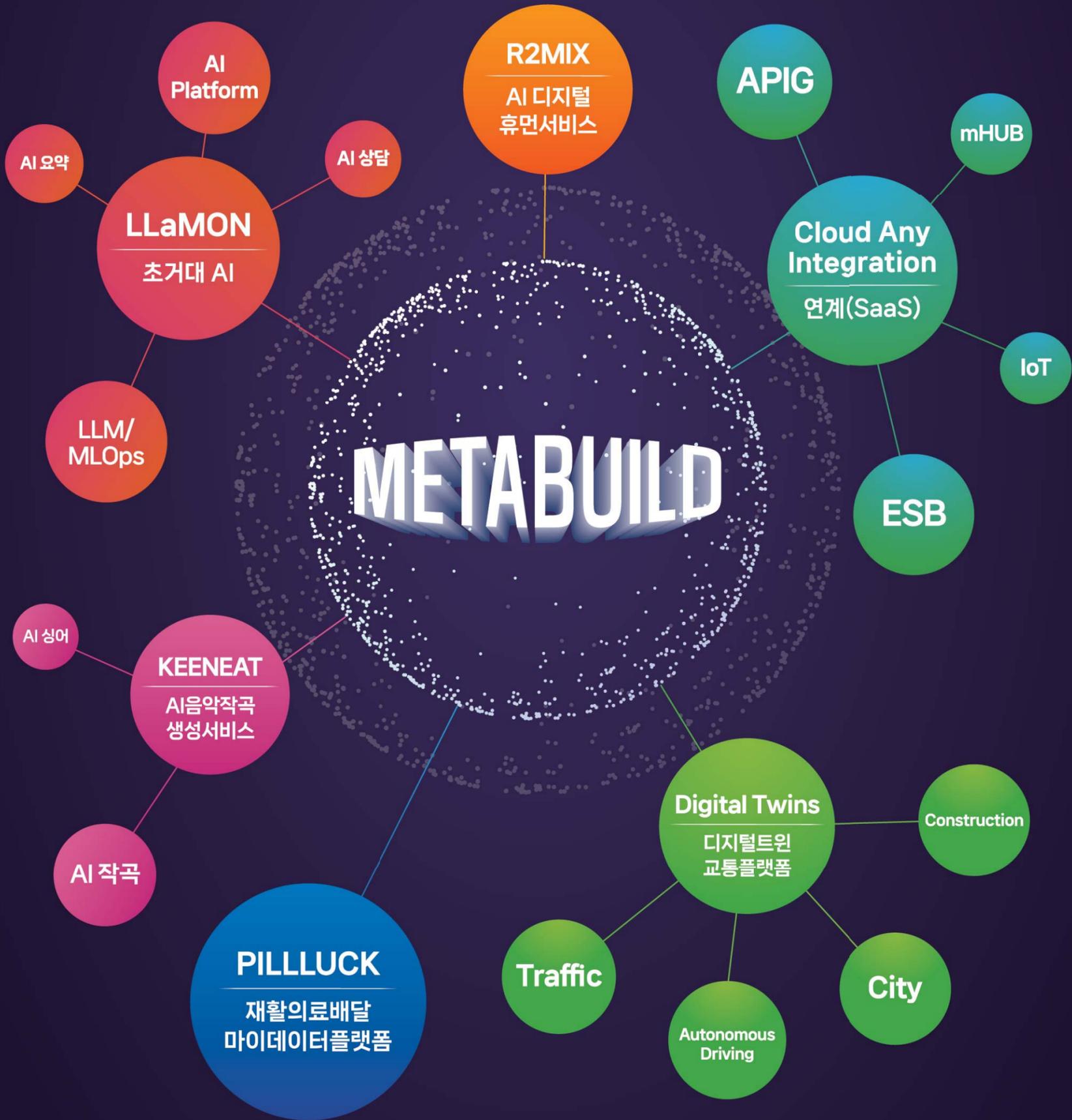
- 부음**
- ▲신외군씨 별세, 김대한·김우한·김연희(보스컨설팅그룹(BCG) 코리아 대표)씨 모친상 = 2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0일. 02-3010-2000
 - ▲원유숙씨 별세, 노태호(가톨릭대 명예교수·전 대한심장학회 회장)·노건호씨 모친상 = 27일 오전 5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0일. 02-2258-5951
 - ▲정호근(제12대 국회의원(전국구·민정당))씨 별세, 김희자씨 남편상, 정주연·정석록씨 부친상, 현미선씨 시부상 = 28일 오전 5시 2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30일. 02-3410-3151
 - ▲이판례씨 별세, 김신·김명신·김유신(OCI 대표이사 사장)·김윤미씨 모친상 = 28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30일. 032-460-3444



AI · Cloud · 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AI LLaMON Platforms

연계통합 미들웨어 ·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전통주 접목 통해 글로벌 공략해야



정성운의 K-위스키 발전을 위한 제안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K-문화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주목받고 있다. K-팝, K-드라마, K-푸드에 이어 이제는 K-위스키가 새로운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위스키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전통주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독특한 스타일의 K-위스키가 등장하면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K-위스키의 가장 큰 잠재력은 한국 전통주와의 접목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은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전통주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 전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스타일의 위스키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발효 방법과 현대적인 증류 기술을 결합한 차별화된 K-위스키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세심한 디테일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장인정신과 이를 통해 성취한 높은 문

화적 완성도 역시 K-위스키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스키는 보리에서 몰트, 몰트에서 맥즙, 맥즙에서 맥주, 맥주에서 증류주, 증류주에서 숙성 원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수가 개입하며 변화한다. 개별 요소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이를 적용한 기획으로 세계가 놀랄 만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현재 국내 위스키 시장은 소수의 애호가들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를 넘어 위스키 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다양한 가격대의 위스키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위스키에 대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소비자들 위스키의 매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국내 전문가, 인재 양성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위스키 제조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스코틀랜드 헤리티지와트래드학이나 양조증류협회(IBD) 등 훌륭한 전문가 양성기관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위스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로컬 증류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에는 이미 다양한 전통주 증류소들이 존재하며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K-위스키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다. 소규모 증류소들이 가진 전통적인 제조 기술과 노하우를 현대적인 위스키 생산에 접목시킨다면 한국만의 독특한 위스키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K-위스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도 중요하다. 뉴월드 위스키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도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뉴월드 위스키는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위스키와는 다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대만,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독특한 원료와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여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뉴월드 위스키들이 그 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위스키는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위스키 산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英 헤리티지와트래드 양조증류학 석사, 쉐골든블루 마케팅팀

병든 선진국



김연세의 정책사회부

지난해 우리나라 여자는 월급을 남자보다 평균 29.3% 적게 받았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OECD 회원국 38곳 중 차이가 가장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부터 1위 자리를 한결같이 지켜내는 중이다.

한국의 30% 차이를 보일 때 미국은 남녀 임금격차가 작년에 16.4%까지 줄었다. 뉴질랜드는 4.2% 차(差), 그리스는 5.9%(2019년) 차까지 좁혀졌다. 벨기에에는 1.1%(2022년) 차로 격차가 사실상 완전히 해소됐다.

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다. 비정규직 근로자 평

균 월급이 역사상 처음 200만 원대에 진입했다고 한다. 200만 원은 정규직이 17년 전인 2007년에 평균으로 받은 액수다. 당시 비정규직은 127만 원을 받고 있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극은 2007년 기준 73만 원 차에서 2024년에 174만 원 차까지 벌어졌다.

통계청의 집계를 보면, 올해 정규직 근로자의 상여금 수혜율은 89.0%에 달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은 40.1%에 그쳤다. 근로자 5명 중 3명은 상여금과 연이 닿지 않는다. 유급휴가 수혜율도 각각 86.9%, 38.7%로 차이가 컸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95.0%, 52.2%였다.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 (언제까지) 몇조를 투자하겠다”,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어떤 걸) 실시한다” 등의 정책 발표는 흔히 접한다. 경제를 위해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일자리와 노동에 따른 적절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허한 의

침일 뿐이다. 성별, 정규·비정규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오래다. 어느 장관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올해 여름 공직을 떠났다.

올해 20대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비중이다. 특히,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 수가 81만 7000명으로, 10년 전보다 40만명 넘게 늘어났다.

돈의 가치 하락과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하루를 근근이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 젊은층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상당수가 노동시장에서 좌절을 맛보는 나라. 규모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속은 병든 사회로 가고 있다. /k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9일 (음 9월 27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마음은 바빠도 행동은 옮겨지지 않는다. **48년생** 도장에 신경을 써야 한다. **60년생** 축적된 지식으로 업무능력이 원활. **72년생** 기다리라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먼저 다가가는 것도 방법. **84년생** 옆에 있는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라.
- 37년생** 차분히 사색하면서 자금계획을 정리. **49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은 법. **61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외출을 자제. **73년생**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없을 것. **85년생** 멀리서 즐거운 소식 온다.
- 38년생**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 **50년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으니 기쁘게 그치지 마라. **62년생** 우선은 남의 떡이 커 보인다. **74년생** 직장의 소중함을 느끼고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날. **86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떼면 그만.
- 39년생** 명예가 떠오르니 준비. **51년생** 현상 유지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63년생** 하늘도 맑고 푸르니 길을 떠난다. **75년생** 친구인가 싶었는데 원수도 이런 원수야. **87년생** 하나를 개선하면 또 하나의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인생.
- 40년생** 사돈 간 언쟁에 끼어들면 본전 찾기 힘들다. **52년생** 강을 건너듯 배를 보편해 두라. **64년생** 정확한 의사 표현이 관계를 좋게 한다. **76년생** 업무가 힘들다면 상사에게 의논하고 조언 구하라. **88년생** 배우자로 인해 지출이 많다.
- 41년생** 찬바람이 옷깃에 스며들기 전에 겨울을 준비. **53년생** 어차피 할 일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 **65년생** 함께하려거든 상대방을 의심치 마라. **77년생** 원칙이 없다면 주변의 도움이 따르지 않는다. **89년생** 동문서주해서 이사 진행.
- 42년생** 매매를 위해 상대를 만나도록. **54년생**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66년생** 잘 차려입은 거자가 더 대접을 잘 받는다. **78년생**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발 물러서서 보면 길이 보임. **90년생**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놔둬라.
- 43년생** 쉽게 얻은 행복은 빨리 사라진다. **55년생** 파란색이 행운을 가져다줄 것. **67년생** 지나친 자존감을 오히려 해를 끼친다. **79년생**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는 일은 누구나 필연적이다. **91년생** 시간적 변수만 배제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가.
- 44년생** 작년에 뿌린 씨가 결실을 본다. **56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타협이니 함의하라. **68년생** 모난 돌이 정 맞으니 의견이 달라도 나서지 마라. **80년생** 현재가 과거의 시간보다 못할 리 없으니 도전. **92년생** 귀인이 나타나니 운이 활짝 열린다.
- 45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격. **57년생** 바쁘기는 하지만 실속은 없다. **69년생**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아 행복의 일상. **81년생** 어려움은 자신만이 겪는 일이 아니며 발전이란 희망이 있다. **93년생** 지나간 세월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 46년생** 부자라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널리 인정받는다. **58년생** 특기를 남도 알아 주니 기쁘다. **70년생** 상대방이 못마땅해도 오늘은 너그럽게 넘어가자. **82년생**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슬프다. **94년생**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하루.
- 47년생** 흉수 기침 화재로 인한 재난을 삼재(三災)라 한다. **59년생** 이상문제로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니 의견통일이 먼저. **71년생** 내일을 바라보며 만족. **83년생** 남쪽에서 귀인을 만난다. **95년생** 생각이 못한 초대로 정신없이 바쁘다.

김상회의四季

하늘 원효대사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의 소재가 되기에 충분한 전래 예화가 많은 분 중의 하나가 원효대사다. 방방곡곡의 사찰이나 암자를 가다 보면 원효가 세우거나 수행처로 삼지 않았던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도적 떼가 머무는 산중이나 동굴에서 활벗은 민중 속에 섞여 일상생활 속에서 불심을 기르게끔 하며 마을과 산천을 누비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대승기신론소’와 같은 역작의 논소를 지어 불교 논서로서 동북아에 그 이름이 높았다. 이는 신라십성(新羅十聖)의 한 명으로 그 칭송은 대단하다.

어쨌든 파격적인 행보를 일삼다 보니 못마땅해하는 이도 많아 ‘송고 승전’에 따르면 황룡사에서 인왕백고화회라는 법회를 열었을 때 원효도 참석을 추천을 받았으나 당시 승려들이 원효의 파계 행적을 문제 삼아서 반대했다 한다. 그러던 중 당시 왕비가 병이 났는데 용하다는 의사들도 고칠 수 없다가 용왕으로부터 얻었다는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이라는 불경을 원효에게 경전을 주석하여 강론시키면 왕비의 병이 나을 것이라 했다 하여 왕은 불경의 내용을 풀어 강의해 달라는 왕명을 내렸다. 원효는 4일 만에 해설집인 소(疏) 5권을 써서 강의를 마친 뒤 “지난날 서까래 백 개를 고를 때는 끼지 못했었는데 이제 용마루 하나를 고르는 자리에는 나 하나만이 있구나”라고 하니 원효의 참석을 반대했던 승려들이 부끄러워하며 참회했다고 한다. 이때 원효가 지은 해설집이 바로 ‘금강삼매경론’이며 ‘대승기신론소’와 함께 원효의 역작으로 칭송되고 있다. 금강삼매경론은 실제 원효대사의 작품이니 실제로 있었던 팩트이다. 팩트에도 전설 같은 스토리텔링이 붙여졌지만 그만큼 역작임을 가늠케 한다. 하늘과 같은 필자의 스승, 자부심과 자긍심 원효대사를 기려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2	8		3	1	6
1		6		5	
	7	5			3
8				4	3
	4	1			2
7				8	4
		5		7	1
4	9		3	2	8

5	9	7	4		1
	4	5			9
	1	7		6	
					4
	4	7	8	3	9
		1			
			2		3
1				7	9
6		4	5	7	2

8	2	9	1	8	9	6	7
1	6	9	2	7	8	9	8
9	7	8	9	6	2	1	2
2	9	8	6	8	1	7	9
2	9	1	7	8	8	9	6
6	8	7	9	1	2	2	8
8	6	1	8	9	7	2	9
7	8	9	2	1	9	6	8
9	1	2	8	6	7	8	9

메트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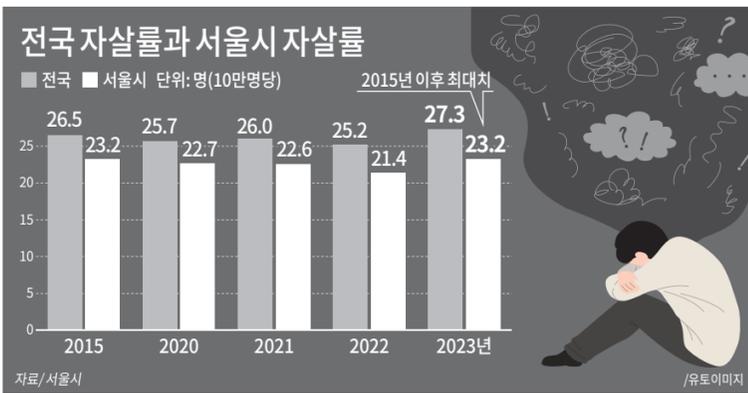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3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4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0만명 당 23명 자살... 서울시 “2030년까지 절반 줄일 것”

서울시민 자살률, 2015년 이후 최고치
민간의 전문 심리상담 등 연계·지원
지역 특성 고려 ‘통합 모델’ 구축
시민참여 행사로 생명존중 공감 유도



지난해 서울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시민이 2100명을 넘어섰고, 자살 의·시도자는 37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서울시민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3.2명)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자 서울시가 ‘일상 마음 돌봄 +지역 주도+시민 참여 중심’을 골자로 한 특단의 자살 예방 정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선제적으로 지키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 예방 대책과 자살이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생명 돌봄 활동 등의 주요 추진 과제를 시행해 오는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우선시는 시민들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전환되기 전 일상 속에서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민간의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시민 누구나 주 1회, 50분 이상, 총 8주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지원 금액은 회당 8만원이다. 올해 2만명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27년부터는 매년 10만명에게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4시간 자살예방상담 마음이음 상담전화(1577-0199) 상담 인력도 현재 12명에서 2026년까지 30명으로 늘려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9개구, 11곳에서 운영 중인 마음상담소는 2026년까지 모든 자치구, 27개소로 확대한다. 정신 건강 전문 요원과 임상 심리 전문가들이 마음 건강에 대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민간 심리기관을 연계해준다.

시는 획일적인 사업을 지양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자살 예방 통합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1인가구 밀집지 등을 ‘동행존 생명존중 마을(가칭)’로 지정하고 동네 병원, 상점, 통반장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 등의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하며 이웃을 돌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네 병원에서는 1차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건강 설문’과 ‘자살 행동 척도 진단’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역 보건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빠른 심층 상담을 돕는다. 시는 정신 의료 기관 검진과 상담 비용을 연 최대 3회(2만~4만원) 지원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자살 예방 메시지, 수기 공모를 비롯해 영화제와 같은 시민 참여 행사를 진행해 생명 존중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가족·친구 등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빠르게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생명 지

킴이’도 체계적으로 양성해 이웃에 지속적인 도움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그간 시가 추진해온 자살 예방 대책이 고위험군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사실은 서울시가 정신 건강이라든지 자살 문제를 주요 대책으로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오지 못했다”면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교육청, 여러 민간, 지역 사회와 협력해 이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거고 꾸준히 추진하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이 심하고 헬조선이어서 자살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정신 건강에 있어서 인식의 문제, 그리고 정신 건강 취약군에 대한 안전망이 부족한 것 등이 자살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강화하면 충분히 성과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올해 수능 서울 226개교서 11만명 응시

서울시교육청 ‘수능 세부 운영 계획’ 재학생 53.6%, 졸업생 42.9% 차이

내달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에 서울 11개 시험지구, 226교의 시험장에 시험장이 꾸려진다. 이날 총 11만734명의 수험생이 서울에서 올해 수능에 응시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5학년도 수능 세부 운영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서울에서만 226개 학교에 4218개 시험실이 마련된다. 서울 응시자는 총 11만734명으로, 이중 53.6%에 해당하는 5만9325명이 재학생이고, 졸업생은 4만7547명(42.9%)이 시험을

치른다. 검정고시 등 출신자는 총 3862명이다.

서울 전체 응시자 52.2%인 5만7841명은 남성, 47.8%인 5만2893명은 여성이다.

시험실 감독관 등 시험 관계요원 수는 1만9290명이다.

경증시각, 중증시각, 중증청각,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을 위한 시험편의제공시험장은 4개 학교에 마련된다.

지난해 이어 소년수형자 12명은 남부 교도소 내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에 응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자료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을 통해 안내하고, 수험생 예비소집 시 ‘수험생 유의사항’을 유인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감독관 교육도 사전에 반복해 실시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방송 및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지침을 보완하며 시험 관계요원 교육 시 관련 내용도 강화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5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올해부터 시험 관계요원 명찰에 이름을 삭제하고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등 감독관 보호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hj@

“평택·여주 둘레길 걸으며 가을 느껴요”

경기도-관광공 ‘경기둘레길 걷기행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6일~27일까지 양일간 평택호 예술공원과 여주한강문화관에서 ‘2024경기둘레길 걷기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한 일반 참가자와 평택 숲길, 여주 여강길 회원 등 총 600명이 참가했으며, 텀블러를 지참하여 식수대를 활용함으로써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 경기둘레길 가진 친환경 여행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직접 실천했다.

참가자들은 평택호 예술공원과 한강문화관에 모여 등록 절차를 거친후 몸풀기 체조를 하고, 평택호반과 평택국제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경기둘레길 45코스’ 및 남한강을 따라 이어진 ‘경기둘레길 35코스’ 일부를 약 2시간 동안

걸으며 알록달록한 단풍 등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 코스는 평택과 여주의 민간단체가 오랫동안 가꾸어온 지역 도보길인 숲길, 여강길과 경기둘레길이 합쳐진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며, “특히 참가자 전원이 텀블러를 지참,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등 저탄소 친환경 여행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둘레길’은 경기도의 외곽을 따라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두발로 경험할 수 있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로 곳곳의 활기와 바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명항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외곽을 한바퀴 돌아 원점 회귀하는 총 길이 860km의 순환 둘레길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삼육대, 자체 기술로 완성한 ‘SUBot’ 론칭

(AI 챗봇)

2026년까지 ‘AI 통합교육 플랫폼’ 구축

삼육대학교가 인공지능(AI) 챗봇 ‘SUBot(수봇)’을 개발해 론칭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외주 개발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적인 기술로 완성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는 2026까지 AI 튜터 기능 등을 담아 ‘AI 통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삼육대에 따르면, SUBot은 삼육대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학 공식 캐릭터 ‘수야’ 이미지를 클릭 혹은 터치하면 된다. 대학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OpenAI의 챗GPT API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SUBot 개발은 기획처 AI대학 혁신센터 주도로 이뤄졌다. 외주 개발이 아닌, 대학 자체 기술력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신동석 AI대학혁신센터장은 “AI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외주 개발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이 자체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우리 대학은 AI 기술에 대한 실용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질적인 적용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향후 다양한 AI 프로젝트에 핵심 자산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OpenAI의 챗GPT API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SUBot 개발은 기획처 AI대학 혁신센터 주도로 이뤄졌다. 외주 개발이 아닌, 대학 자체 기술력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신동석 AI대학혁신센터장은 “AI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외주 개발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이 자체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우리 대학은 AI 기술에 대한 실용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질적인 적용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향후 다양한 AI 프로젝트에 핵심 자산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10월 29일(화) 음력 : 9월 27일

수도권 날씨 13~1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예보: Kw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막말 유세 논란 트럼프... 美 대선 역풍 부나 /사진 뉴시스
▲UN안보리, 30일 ‘북한군 러 파병’ 회의 소집

▲가자지구 휴전 논의 두 달 만에 재개
▲WSJ·WP “中 해커가 美 정치인 통화 음성 해킹”



▲日총선 자민당 참패... 이시바 책임론 ‘활활’ /사진 뉴시스
▲‘사면초가’ 보잉, 20조원 자금조달 계획 내놓는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4050세대 달린다
골프웨어 주춤
러닝웨어 질주
니



Life

국내외
비만치료제
개발 붐물
L2



농촌은 풍족, 고객은 편리... 모두에게 이로운 '포용금융'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은 지난 1965년 종합농협 생명공제 사업으로 시작했다. 2012년에는 농업, 농촌, 농업인에 대한 안정적 금융지원을 위한 민간 보험사로 전환해 총 자산 60조원, 고객 255만명 등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정부의 정책상품인 농업인안전보험을 판매해 농업인들이 국내 먹거리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100% 국내자본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기반의 생명보험사에서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편리하게 고객과 함께하는 생활금융 동반자'의 비전과 '언제 어디서나 내맘같은 보험'이란 슬로건으로 고객, 기업, 농업인 모두에게 이로운 보험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생명사랑 실천

NH농협생명은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회사의 비전인 '고객사랑 1등 생명보험사' 실천을 목표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전국 소외계층 대상 쌀 나눔으로 NH농협생명은 지난 8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본사를 방문해 쌀 2만5000포대(250톤)를 전달했다. 후원된 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의 네트워크를 통해 약 30만명의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윤해진 대표는 "전국푸드뱅크에 귀중한 나눔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생명은 협동조합 보험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생명 가치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5월엔 '2024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제주하귀농협 관내 물메초등학교와 하귀초등학교 재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모두레 어린이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 교육은 금융교육 소외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경제·금융을 이해하기 쉽게 진행하는 NH농협생명만의 금융교육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총 409회, 1만 2889명의 어린이가 교육에 참여했다. 올해는 제주총국을 시작으로 전국의 농축협과 연계해 35개 초등학교에서 14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표는 "앞으로도 전국 농축협과의 적극적인 교육 연계 추진으로, 금융교육에서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기·지속적인 금융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가 경기 여주농협 관내에 위치한 화훼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로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 /NH농협생명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왼쪽)와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오른쪽)가 임직원에게 청렴 격언이 부착된 행운목을 전달하고 있다.



김재복 NH농협생명 부사장이 침수된 하우스시설을 정리하고 있다.

국내 유일 '농업인 안전보험' 판매 저소득 소외계층에 쌀 250톤 전달 소외지역 초등학교 찾아 금융교육

6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소비자만족도 등 고객서비스 혁신 앞장 임직원 대상 '청렴' 새기는 캠페인도

자연재해에 피해 입은 농가 방문·지원 도농교류 추진 위한 '팜스테이 체험'

◆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

NH농협생명은 기업 핵심가치로 소비자 중심경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설정했다. 6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CCM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NH농협생명은 지난 2014년 최초로 CCM인증을 획득한 이후 2024년까지 6회 연속 재인증에 성공했다.

NH농협생명은 고객만족도조사, 고객기상청, 고객패널 운영 등 소비자가 체감하는 고객서비스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전 임직원이 참석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

호 의식 강화와 소비자 중심 경영을 다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윤해진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모든 경영활동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중심경영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지난 5월 '농협생명 청렴 가꾸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출근하는 임직원들에게 윤해진 대표이사가 청렴과 관련 격언이 부착된 행운목을 직접 전달했다.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행운목을 가꾸면서 '소신 있는 Yes or No, 청렴의 출발입니다', '떨어지는 청탁, 다가오는 청렴' 등의 핵심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생명은 청렴문화 전파를 위해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청렴 문자메시지 정기발송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청렴직원 추천 채널운영 ▲청렴 바탕화면 설정 등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활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농업인 복지증진...지역사회 발전

NH농협생명은 태풍 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한 금융지원, 농촌순회 무료 진료사업, 임직원 농촌 봉사,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농가를 방문해 하우스 토사정리 등 수해복구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수해복구지원에는 김재복 NH농협생명 부사장과 이범성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장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NH농협생명은 ▲농촌일손돕기 ▲농업인 의료지원사업 ▲수해활동지원 ▲농산물구매 및 나눔행사 ▲수해활동지원 ▲협동조합 간 협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농업인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6월엔 도농교류 추진을 위해 고객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농촌 팜스테이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제9기 고객패널과 NH농협생명 고객지원부 임직원 32명은 강화도 달빛동화마을에 방문해 버섯수확, 썩개떡만들기 등 다양한 농가 체험프로그램을 함께했다.

고객패널들은 농촌을 체험해 농민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고 임직원들은 고객과 함께 소통하고 고객이 느끼는 NH농협생명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청취했다.

윤해진 대표는 "앞으로도 '희망농업·행복농촌'에 앞장서고 고객과 임직원 소통을 통한 소비자중심 경영 실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인구 13명 김천이 연 '김밥축제'에 10만명 몰려 북적
▲유인촌 "한강 노벨상, 독서 진흥 계기 삼을 것" /사진 뉴시스

▲피겨 차준환, 시즌 첫 그랑프리 대회서 동메달
▲종로구, 내달 3일까지 '서촌 브랜드 위크' 행사



▲연장전 지고 라커룸 부순 김주형...KPGA "경위 파악"
▲쇼트트랙 김길리, 1차 월드컵투어 1500m 우승...최민정은 3위 /사진 뉴시스